

10만불짜리 링컨, 3년 후엔 반토막

주도비 차량 감가율 비교
마쓰다·포드도 상위 랭킹

대부분의 차량이 시간이 지나면 중고 차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은 감가율이 무려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교육 전문 사이트 주토비(Zutobi)는 에드먼즈의 차량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톱 100위 차량의 감가율을 분석했다. 이중 감가율이 가장 높은 차량 10대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감가율이 높으면 잔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산출 기준은 연간 평균 1만3500마일을 주행했을 때 3년 후 잔존 가치를 계산한 결과다.

감가상각 비율이 가장 큰 차량은 링컨의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네비게이터(생산자권장가격, 약 10만 달러)였다. 이 차는 감가율이 무려 47.08%로 나타났다. 초기 구매 가격보다 성능과 인테리어에서 동급 모델에 뒤처진 점이 중고차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럭셔리 SUV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모델로 평가되는 마쓰다의 SUV CX-90은 감가율이 43.65%로 2위에 올랐다. 최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 포드의 익스페디션도 이와 비슷한 43.04%의 감가율을 보여



한국차를 포함한 차종 10개가 판매 3년 후 잔존가치가 40% 이상 떨어지는 심각한 감가율을 기록했다. 칼스배드 중고차 딜러십에 진열된 차량들. [로이터]

3위에 랭크됐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구매 3년 후 감가율이 42.86%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생산자권장가격(MSRP) 4만1800달러인 아이오닉 5의 중고차 가격은 3년 후 1만7916달러(42.86%)가 내린 2만3884달러였다. 아이오닉 6도 3만7500달러(MSRP)에서 2만1427달러로 떨어져 42.86%의 감가율을 기록했다.

매체는 아이오닉 5와 6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전기차 시장의 빠른 변화 등으로 감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제네시스 G90도 7위에 올랐다. G90의 감가율은 42.03%로, 8만9200달러(MSRP)에서 불과 3년 만에 잔존 가치

가 3만7494달러 하락했다.

G90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와 제네시스 등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잔존 가치 향상은 새로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소비자들 이 한국 전기차와 럭셔리 세단에 대해 신뢰를 쌓고 더 높은 잔존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차원에서 가격 방어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감가율이 42.32%였던 아쿠라 MDX가 6위, 41.82%를 기록한 포드 엡지는 8위, 볼보의 XC60과 XC90은 구매 3년 후 잔존 가치가 각각 40.60%와 40.11%씩 떨어져 10위에 올랐다.

유훈식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극우단체 CPAC 네트워킹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연례 회의에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와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입 당사자들이 참석해 네트워킹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난입 사건 혐의자들을 전격 사면한 바 있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2020년 대선 결과 승인을 위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불거진 폭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폭동에 연루된 회원 50명 정도가 기소됐고 당시 대표이던 헨리 태리오는 폭동 공모 등 혐의가 인정돼 2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받았다.

FBI 본부 요원 1500명 원거리 전출 예고

연방수사국(FBI)가 워싱턴DC 본부 근무 요원 1500여명을 전국 각지의 필드 오피스로 전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워싱턴지역 주민들로, 전출 될 경우 사퇴를 결심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FBI에는 약 3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전출되는 요원 중 1천명은 범죄율이 높은 전국 각지의 대도시로 전출될 예정이다.

나머지 500명도 알라바마주 헨츠빌의 거점 본부로 전출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주택도심개발부(HUD) 공무원 절반 감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주택도심개발부(HUD)의 공무원 절반을 감축할 예정이다.

HUD는 주택 정책 최고 규제 기관으로, 주택 임대차와 구매 등에 있어서 인종차별 등을 감시하고 각종 융자 차별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기관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HUD 전체 직원 8300명 중 4천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HUD는 1965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당시 흑인 주택 차별을 감시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VA 의회 마쳐, 380개 법안 주지사 서명 대기

버지니아 상하원의회가 지난 22일 정기회기를 마무리하고 380개 법안을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2026년 1월부터 최저시급을 현행 12.41달러에서

13.5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상하원 의회는 조만간 임시 회기를 소집해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과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응한 추가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단속 실적 낮아 ICE 권한대행 직무 배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체포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최고위 당국자를 직무배제하고 강등조치했다.

이중에는 칼랩 비텔로 ICE 국장 대

행도 포함돼 있다. 비텔로 국장대행은 선임 고문 형식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지만, 명령 계통에서는 배제된다. 현재 ICE 체포작전에 동원된 인력은 5500명이지만, 이를 세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옥채 기자

올해 전국 최고 대학 ‘MIT’ 선정

올해 전국 최고 대학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선정됐다.

가주에서는 스탠퍼드대가 전국 3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교육평가 전문업체 ‘니치’가 최근 발표한 2025 전국 대학 순위에 따르면, MIT가 지난해 1위였던 예일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등급에서 A+를 받은 MIT는 ▶학업 ▶다양성 ▶대학가치 ▶위치 ▶교수진 ▶학생 생활 등에서 A+ 등급을 받았다. 다만 ▶운동 경기에서는 C+라는 낮은 등급을 기록했고, ▶안전성(B+) ▶캠퍼스 음식(B-) 측면에서도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어 2024년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예일대는 전국 2위로 밀려났다. 예일대 역시 전체 등급에서 A+, 대부분의 항목에서 A등급 이상을 기록했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C+를 받았다.

3위는 지난해 2위에 올랐던 스탠퍼드대가 차지했다. 스탠퍼드대도 전체 등급에서는 A+를 받았으나, 위치와 안전성 측면에서 B등급을 받았다.

하버드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위를 유지했다. 이어 다트머스대가 5위를 기록했다.

뉴욕의 컬럼비아대는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컬럼비아대 역시 전체 등급에서 A+를 기록했지만, 안전성과 운동 경기 측면에서 각각 B와 B+를 기록했다. 이외에는 브라운대(7위), 라이스대(8위), 밴더빌트대(9위), 프린스턴대(10위)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그 외 가주 지역 학교들을 살펴보면 하비 마드 칼리지(14위), 포모나 칼리지(16위), 캘리포니아공과대학(19위·캘텍), UCLA(20위),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24위), USC(28위), UC 버클리(42위) 등이 상위 50위권 내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윤지혜·강한길 기자

워싱턴 날씨 (°F)

	25일(화) 61~37		28일(금) 51~37	
	26일(수) 62~45		1일(토) 59~32	
2월 24일(월) 56~36	27일(목) 61~38		2일(일) 42~2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I-495 가까운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1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4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4 1/2, 차고2
--	--	--

제 106주년 3·1절 기념 행사

100세 시대 산증거인 원로 어르신들이 3.1절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렁찬 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5년 2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소 에덴 시니어 센터
15120 Enterprise Ct. #101, Chantilly, VA 20151

문의 202-258-6384

대한민국 만세! 민족통일 만세! 한미동맹 만세!

함께하는 단체

버지니아 한인회 / 미국 수도 DC 한인회 / MD 몽고메리카운티 한인회 / 워싱턴 단체협의회 / 워싱턴 재향군인연합회
사임당 소사이터티 / 워싱턴 보수연합 / 워싱턴 시니어 풀뿌리연합 / 미동부 노인연합회 / 워싱턴지구 영남향우회

주최: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한미 향군 상호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정기총회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가 지난 주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김인철 회장은 “미국 재향군인회와 상호협약을 통해 양국 국가에 거주하는 향군들이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협약이 완료되면 미국에 사는 우리 향군들이 미국 식당 서비스와 자동차 구매 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재향군인회 임원들이 매주 두세 차례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나, 조기 형태의 유니폼으로 인해 추운 날씨에 애로가 많다”면서 “특별 후원과 회비를 건여 자켓 형태로 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향군인회는 여러 회원들이 1천달러 이상을 후원해 적립금이 꽤 쌓여 있으나 유니폼 자켓 제작에 1만4천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한 참석자가 1천달러를 쾌척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장세근 주미대사관 육군무관은 “향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된지 불과 80여년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대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길현 주미대사관 보훈관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민주화 유공자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모든 분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정기총회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로 참전했던 루디 매킨스씨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매킨스씨는 미해병 제1사단 제11연

대 제3대대 소속으로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영웅적인 전과를 올려 파플하트 훈장을 4개나 받은 인물이다.

매킨스씨는 “미국 해병대 전투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장진호 전투(Chosin Few)’ 생존자로,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과 미국 내 한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전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은 총 1만7843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워싱턴 교회협의회, 워싱턴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한미여성재단 등의 한인단체 관계자가 다수 참여했다.

김윤미 기자

주미대사관

이민정책 간담회 개최

주미대사관이 지난 21일 이민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을 초빙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이 미국 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재미동포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인 사회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미대사관은 미국 내 체류·거주중인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여권·비자 유효기간 확인, 미국 법령 준수, 유사시 관할 공관과의 적시 소통 등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함께 참여한 각 부문 전문가 및 권익단체, 한인단체들도 현장의 상황과 한인 사회 반응,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인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

으로 향후 상호간 소통과 협업체제를 강화해 정보교환 및 한인사회 내 이해 제고, 미국 내 체류 한국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윤정·김민식 변호사,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제후 함께센터(Hamkae center),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워싱턴 가정상담소,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월드유타 워싱턴지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광복회 워싱턴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버지니아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총한인회, 워싱턴 지구한인연합회 관계자, 조지타운대·조지메이슨대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

김윤미 기자



주미대사관에서 한인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이민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난데일 고펠바우 식당 25년 역사 뒤편길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애난데일의 고펠바우 식당 주인 부부의 은퇴를 기념해 감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과 안드레스 히메네즈 메이슨 디스트릭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을 통해 “애난데일의 한국 전통 음식을 서비스해 온 고펠바우 식당 주인 이명숙씨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곶바우는 애난데일 등 메이슨 디스트릭에서 한국 음식을 전해준 소중한 곳으로 이씨의 은퇴를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곶바우의 갈비탕이 2011년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40개 음식에 선정됐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곶바우 식당 주인 이명숙씨(왼쪽)와 남편 이종석씨(가운데)가 안드레스 히메네즈 메이슨 디스트릭 수퍼바이저에게 감사 결의안을 받고 있다.

곶바우 식당은 23일(일) 25년 역사를 뒤로 하고 간판을 내렸다.

이씨 부부는 1990년 2월3일 뉴욕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민 생활의 첫 발을 뗐다.

이씨는 “이번 직후 델리, 샌드위치 가게, 베이글 가게 등에서 어떤 일든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10년 정도 일한 후 2000년 7월1일 작은 식당 곶바우를 열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좌절도 경험하면서 열심히 일하다보니 어느덧 25년이 흘렀다”고 회고했다.

그는 “뜻밖에도 카운티 정부에서 은퇴를 기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먹먹함을 느꼈다”면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과 곶바우와 함께한 동료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곶바우 식당 자리에는 4월 초 오이소분식점(OISO KOREAN STREET FOOD)이 문을 열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도 정리 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POW/MIA Accounting Agency) 직원도 해고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DPAA는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유해를 송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전쟁 포로 또는 전쟁 중 실종자로 분류한 이들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터를 무대로 역사학자, 고고학자, 과학자 직원들이 배치돼 있다.

DPAA에는 현재 700여명이 근무하

고 있다. 이중 300명은 연방정부 공무원, 400명은 군인 혹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년 1억9600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국방부는 DPAA 예산을 향후 5년간 8%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DPAA 축소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민단속, 본토방위 등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브래덕 패밀리 치과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최태원 “對美 투자 검토… 인센티브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센티브가 있다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세금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그래야 계획을 짜거나 뭘 하는데 반응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 측의 인센티브가 세금 인하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꼭 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닐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서로 좋은 것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또 "살 때는 더싼 걸 사고 싶어 하고, 팔 때는 내걸 많이 파는 그런 관계만 있으면 상당히 삭막한 관계다. 이제는 단순히 상품 수출만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같이 활동해서 서로 시너지를 얻는 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 대한민국도 지금 같은 트렌드 파도에 잘 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미국이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전혀 이야기한 게 없다. 상황이 산업 분야마다 다르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유리한 것도 있다. 솔직히 인공지능(AI) 분야 등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도 유리하고 좋은 곳에 투자하지 않겠나"

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8년에 걸쳐 1천600억 달러(약 230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내가 얘기할 건 아니네, (이번 방미 기간에 만난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거는 계속 집행이 잘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약속을 해서 미국이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얘기했다"며 "실제 그것도 미국이 자기네 실리를 따져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불 위험 보고 못 받았다” 변명

“보고 받았으면 해외 안 갔을 것” LAFD 사장은 “사전 보고 했다”

지난달 7일 LA 대형 산불 발생 당일 가나를 방문했던 캐런 배스 LA 시장이 화재 위험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LA 소방국(LAFD) 측은 사전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배스 시장은 18일 FOX11과의 인터뷰에서 LAFD로부터 산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 대응) 준비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받았던 해와는 물론, 샌디에이고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산불 대응 관련 대비가 LA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달랐다고도 했다.

배스 시장은 “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조언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즉, 가나 출장을 가게 된 이유가 소방국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화재 발생 당시) LA에 있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나 방문은 실수라고 말했는데, LA에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고 통스러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산불 발생 당시 가나

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NBC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나를 방문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실수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크리스틴 크롤리 LAFD 국장은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다는 점을 미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크롤리 국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사전에 대원들을 배치했었다”고 말했다.

LAFD 측은 성명을 통해 펠리세이즈 화재 발생 전 화재 위험 관련 안내문을 내보냈고 이를 시 당국자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난달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주지사실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청원서에는 “뉴섬 주지사가 LA 카운티 산불 발생 당시 중대한 관리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불충분한 지원과 지연된 대응이 지역 사회를 황폐화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불 피해 책임을 묻기 위해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도 배스 시장에 대한 리콜 운동이 시작돼 20일 현재 17만 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김영남 기자

“한국인의 혼 느껴요”... 장구·가야금 만드는 한인 3세

‘코리아나 기프트’ 빌리 윤씨 부모님이 1962년 LA서 개업 전세계에 전통악기 등 판매

“이젠 통과 공편 가족을 조립해 완제품도 만들어 팝니다.”

LA한인타운 남쪽 림파우 길에 사는 빌리 윤(67)씨. 한국말은 못하지만 그는 가야금과 장구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집을 가득 채운 악기와 장신구 일부는 50~60년 전 태평양을 건너왔다. 한국전쟁에서 쫓겨난 미국산 탄피로 만든 낚시 공예품들도 눈에 띈다. 3세인 윤씨는 62년 개업한 ‘코리아나 기프트(Koreana Gifts)’를 부모님으로부터 2008년 물려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빌리 윤씨가 자택 마당에서 가야금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2년 전까지 올림픽과 페도라길에 있던 가게를 정리해 악기와 공예품을 집과 유료 사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가야금 줄을 갈고, 공예품들의 의미와 용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한국인의 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젠 행복하게도 유럽을 포함, 전세계에서 구입 문의가 옵니다.”

그의 조부모는 한국이 일제에 강점되기 전 미국에 왔다. LA에 동지를 틀고 윤씨의 아버지가 태어나 뿌리를 내렸다. 한인(Korean American)이라는 말 자체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의 조부모는 리버사이드에 살다 당시 아시아에게 집 구매를 허용하지 않자 LA로 옮겨왔고 이후 줄곧 LA에 거주했다.

그의 부모는 트럭 운전사와 미용사

로 일했는데, 한국어가 능숙했던 어머니가 가게를 맡아 악기들을 판매했다. 실제 60년대 코리아나 기프트는 LA에서 유일한 한인 선물 가게로 기록됐다. 올림픽과 피코길에 조그만 한식당들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일이다.

“60~70년대에 한국에 파견됐던 미해병대원들이 귀국하면서 낚시로 만들어진 장신구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우리 가게에 오면 추억을 떠올렸어요. 당시 전쟁터에 쫓겨난 탄피들로 만든 재떨이, 담뱃대 등 공예품들이 태평양을 열심히 건너온 탓이죠.”

윤씨가 판매한 오래된 단일 고가품은 1만5000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는 캘스테이트LA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고 미술 교사로 20년 일했다. 거기서 배운 색과 예술의 감흥이 한국 전통 악기와 공예품을 보는 안목으로 발전한

바탕이 된 셈이다.

아직 윤씨의 집에는 자개로 만든 코리아나 기프트 간판이 남아있다. 팬데믹 후 온라인으로 판매터를 옮겼지만 추억과 전통은 여전히 낚시 공예 재떨이처럼 반짝이고 있다.

그는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 오래된 고품들에 쓰여진 한문 구절을 여기저기 주변 한인들에게 문의하기도 한다.

오래된 공예품에 설명을 붙여줄 사람도 찾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고 이제는 한인 1세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아요. 최근엔 병풍에 오랜 글자들을 모두 해석할 수 있었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는 “돈보다는 이제 일종의 사명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러 “美와 정상회담 준비 초기단계…2주내 특사 회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가 시작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에 “정상회담을 조직하기 위한 일이 시작됐고 초기 단계”라며 “회담 성사를 위해 가장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아갈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위협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양국 고위급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코프 차관은 23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는 차기 미·러 회담의 첫 회의는 차관급이 아닌 각 부서 국장급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2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전격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개시하자고 합의한 이후 엿새 만인 이달 18일 장관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에 합의하고 양국 외교공관 정상화 등 양자 관계 회복에

도 공감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12일 전화통화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시기·장소와 의제 등 실무적 사전 조율을 절차로 남겨뒀다.

미·러 주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이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배제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며 크게 반발했고, 유럽연합(EU)도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논의를 일방통행식으로 끌어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바티칸 “교황, 위중하지만 의식 있고 평온한 밤 보냈다”

바티칸 주일 미사 대주교가 집전
전세계 신자들 교황 회복 기원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평온한 밤을 지냈다고 교황청이 23일(현지시간) 아침 밝혔다.

바티칸은 “밤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교황은 휴식을 취했다”고 공지했다고 AFP와 AP,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다만 이날은 이전의 공지와 달리 교황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는지 등은 알리지 않았다. 얼마 뒤 바티칸은 교황이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지만 의식이 있고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임상 검사도 받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내놨다.

주일인 이날 열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와 부제 서품식은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집전했다.

피시첼라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비록 병상에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것이 주님께서 교황이 병환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교황이 이날 미리 준비했지만 전하지 못하게 된 메시지에는 필요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년



을 앞두고 “전 인류에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로마대교구는 이날 저녁 교황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기로 했다.

교황청은 전날 저녁에는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며 “따라서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88세의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8일에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돼 치료받고 있다.

의료진은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증의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며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인구의 80%가량이 가톨릭인 필리핀을 비롯해 한국, 케냐,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천주교도들이 주일 미사에서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가 이날 서울 명동성당을 찾은 필리핀인 팻 산토스(31) 씨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은 “기독교의 상징”이라면서 “그 연세의 분들에게 폐렴은 심각한 질병이라 걱정된다. 잘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티칸 인근에서도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에서 바티칸을 찾은 마테오 리카리는 “극도로 걱정된다. 교황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멜리 병원 밖에는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의 동상 근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꽃과 쪽지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상무장관 “‘IRS 폐지’ 목표”

“대외수입청 이용해야”
NYT, 6000명 해고 착수

하워드 러트닉(사진)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제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I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I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를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메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설명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할 것이라며

“그런 뒤 우리는 미국에 타격을 주는 모든 세금 사기를 없애고 1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IRS 직원 약 6000명도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관련 이메일에 따르면 IRS는 행정명령에 따라 세금 신고 관련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습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트럼프 환호 22일(토)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관세, 불법 이민,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맞서 미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 인생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MC MEDICINE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추구” ... “한국도 버려질 수 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트럼프에 동맹은 가치 아닌 이익
러 처벌않는 건북·중에 잘못된 신호
유럽·한국 동맹상련, 더 협력해야

이재승 고려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우크라처럼 우리도 고립되면 죽어
거버넌스 불안하면 미국 쉽게 패싱
미국만 챙겨선 안돼, 중·러 분석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만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종전 협상의 서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담판을 지으며 종전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이를 지켜보는 한국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사이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는 등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던 전쟁의 현실이 한반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버림받는 우크라이나의 운명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크라이나전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남겼을까.

초유의 외교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한국에 남은 선택지는 뭘까. 권기창(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이 이 같은 고난도 과제를 놓고 지난 19일 대담을 나눴다.



다리 잃었지만, 나라는 잃지 않는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양측에서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병사가 다치거나 숨졌다. 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투에서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오늘날 부대원을 이끌고 사지로 향했다.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권기창=“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맹국이 미국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질서라고 본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는 19세기 제국주의 질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강대국 권력정치와 세력권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하는 질서다.”

이재승=“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극도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통해 세계를 본다. 우크라이나전도 실익이 보이지 않는데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정리하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

는 의견이 급격히 늘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전 종결 방식이 중국·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

권기창=“러시아에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는 걸 보고, ‘대만을’ 얼마든지 침공해도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줬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한다. 대만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더 무서운 건 북한

이 러시아의 혈맹이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도 당연히 기대된다.”

이재승=“그동안 미국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핵 포기 대가로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핵 반납을 조건으로 1994년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받은 안전보장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북한이 나쁜 선례를 배우게 된 셈이다. 실상가상 북한은 파병으로 실전 경험까지 갖추게 됐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처럼 한국도 버릴 수 있냐’고 묻자 대담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



전쟁 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피해 상황

단위: 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70만	군인 사상자	40만
4만8000	군인 실종자	3만5000
387	민간인 사망자	1만2000
80만	실향민(난민 포함)	1020만
61만7000	병력 동원	50만

자료: 허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과학 및 국제관계센터

을 모았다. 이어지는 대담.

-한국은 현재 외교 리더십 부재 상황이다.

이재승=“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다. 미국은 일단 관망 자세로 지켜볼 것이다.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직면한 과제다.”

권기창=“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에게는 한·미 동맹의 가치보단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교안보, 경제통상, 기술 등 다방면에서 트럼프가 매력적으로 느낄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매력 요소는 뭔가.

이재승=“우리나라엔 첨단 제조업 분야인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이 있다. 특히 선박 건조와 수리 능력이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함정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나라다.”

권기창=“미국이 종전을 서두르는 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을 끝내고,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국 견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박현준·하수영 기자

미 상무, 한국 기업인들 만나 “최소 10억 달러씩 투자해야”

〈하워드 러트닉 장관〉

최태원 회장 등 경제사절단에 한국 기업별 투자 기준선 제시 “그 정도 돼야 패스트트랙 가능”

SK·삼성·현대차·LG·한화 등 재계 경제사절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對)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집행자’인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리려면 10억 달러(약 1조44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삼성·현대차·LG·한화그룹 사장급 임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여분간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

심사나 환경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관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이를 위한 기업별 최소 투자 규모로 추정된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최정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퍼시픽다이어로그(TPD)’ 행사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다가가지 않고, 이제 내 장사에 얼마나 좋나 나쁜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좀 더 원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닐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서로 좋은 것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조선·에너지·원자력·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등에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김기환·나상현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mart)과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Diaspora Daniel prayer Meetings USA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2025.3.16^{SUN} - 22^{SAT} PM 7:30 - 9:30

장소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USA



YouTube

다니엘기도회

us.danielprayer.org

Speaker



3.16(주일)
김은호 목사



3.17(월)
선 집사



3.18(화)
사티쉬쿠마르 목사



3.19(수)
손경민 목사



3.20(목)
김진규 감독



3.21(금)
김태훈 선교사



3.22(토)
안재우 소장

WORSHIP · RESTORATION · UNITY



강사 | 주성하 목사

2025 뉴욕 & 뉴저지 청년 다니엘기도회

일시 | **3.14^{FRI} PM 7:30** 장소 | 뉴저지온누리교회

2025 워싱턴 D.C 청년 다니엘기도회

일시 | **3.15^{SAT} PM 5:00** 장소 | 열린문장로교회

내일 윤 무제한 최후진술…여권 “임기단축 개헌 꺼낼수도”

현직 대통령 헌정사 첫 최후진술
직접 진술문 쓰고 변호인단이 정리
계엄 혼란 대국민 사과 담길 가능성
윤측 “대통령, 여러 의견 숙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무제한 변론이 가능한 최후진술인 만큼 계엄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사과 등 대국민 메시지를 담아 탄핵 기간 여론을 최대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 하나의 카드로 탄핵소추 기간 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23일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최후진술과 변론 전략을 가다듬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쓴 육필 진술서와 구두 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인단과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원고를 정리했다고 한다.

임기 단축 개헌 약속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 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12·3 계엄사태 후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여야가 합의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따르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 전 여당 의원들에게 “나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더는 목표가 없다. 하지만 이 상태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며 “임기단축 개헌 제

안 검토’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말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반응을 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과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요청)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에 동참한 일부 2030세대에 대한 감사도 최후진술에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정치와 사회 문제에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최후진술의 큰 줄기는 ‘거야(巨野)’의 폭주에 따른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이 될 전망이다.

박태인·이창훈 기자

최후변론 앞둔 윤… 현재 판단만 남았다

국회	윤 대통령 측	
헌법·법을 위반인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적”	① 요건·절차 미달 계엄 선포	“대통령의 입장에선 국가 비상사태였고, 국무회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
“정치활동·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포고령”	② 위헌적 ‘포고령 1호’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 쓴 것, 형식적 포고령일 뿐”
“유일하게 계엄해제의 결권 가진 국회 장악 시도, 삼권분립 원칙 정면 위반”	③ 국회 장악·의원 체포 시도	“계엄해제의 결 방해하려 한 적이 없고, 비상입법기구 생각한 적 없다”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이후 만들어낸 변명일 뿐”		“군경 보낸 건 국회 장악 아니라 질서 유지 위해서였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력 진입 자체로 위헌적”	④ 선관위 장악 시도	“선관위 시스템 점검하려 한 것, 무력 점거 시도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력 행사 시도, 삼권분립 원칙 파괴”	⑤ 법관 체포 시도	“체포 지시한 적 없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국민 신뢰 배신, 통수권자 자격 없어”		“부정선거 의혹 확인해야 했고, 국회가 중국에 이로운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계엄 필요했다”
“지금도 ‘정치적 반대 세력=반국가 세력’ 비난하는 등 반헌법적 주장 반복 위험”		
“파면하지 않을 경우 장래 위법·위헌 계엄 정당화하는 격”		



최종변론 뒤 선고까지 노 14일, 박 11일 윤 선고기일, 14일 뒤 적용땐 내달 11일

(노무현) (박근혜)

3월 15일 넘기면 가장 긴 탄핵심판
16명 증인신문, 11번 변론 거쳐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두 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시간제한 없이 최후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 14일 현재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74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1일 뒤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11일 뒤인 3월 8일 토요일, 14일 뒤는 3월 11일 화요일이고, 통상 최종 변론 2주 뒤 선고한 걸 감안하면 3월 중순께 선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기각까지 64일(2004년 5월 14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까지 92일 걸렸다(2017년 3월 10일). 두 탄핵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92일째인 3월 15일을 넘기면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재는 앞서 10번의 변론에서 16명의 증인신문과 증거 검토를 통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 심리해 왔다. 구체적으로 5가지 쟁점, ①위법·위헌적 계엄 선포 ②‘포고령 1호’ 발령 ③국회 장악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관 체포 등 체포 지시 등을 따졌다. 이 중 계엄 및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선 영상·문건,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 증인(참석 국무위원) 증언이 비교적 일치한다. 국회 및 선관위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각각 “계엄하 질서 유지”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은 강하게 부인했다. “홍장원 메모”로 체포 지시를 만든 게 내란·탄핵 공작의 핵심”이라는 등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여부는 가장 치열하게 다퉈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요청한 건 불필요하고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체포 지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 전 사령관, 조지호 청장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지가 재판관들의 남은 평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권성동 “공수처는 사기수사 자행… 헌재는 사기탄핵 동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기 수사 자행’,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사기 탄핵 동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 쇼팽’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위법과 기만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며 “‘법비’(法匪)들이 모여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 수사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제(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 용자의 풀인

풀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EMET, Inc
NMLS #20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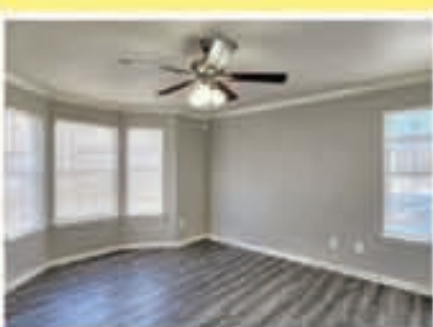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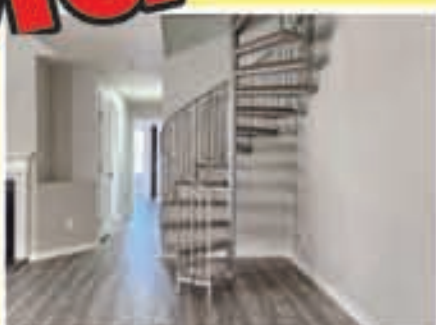
특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Loft, 방2, 화장실2, 완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 450,000



Sold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 7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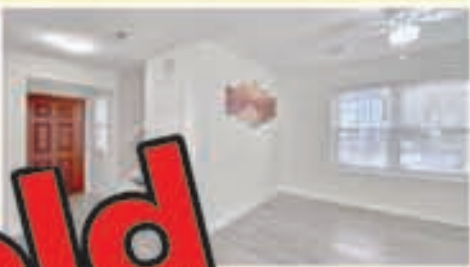
Contract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483,000



Sold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265,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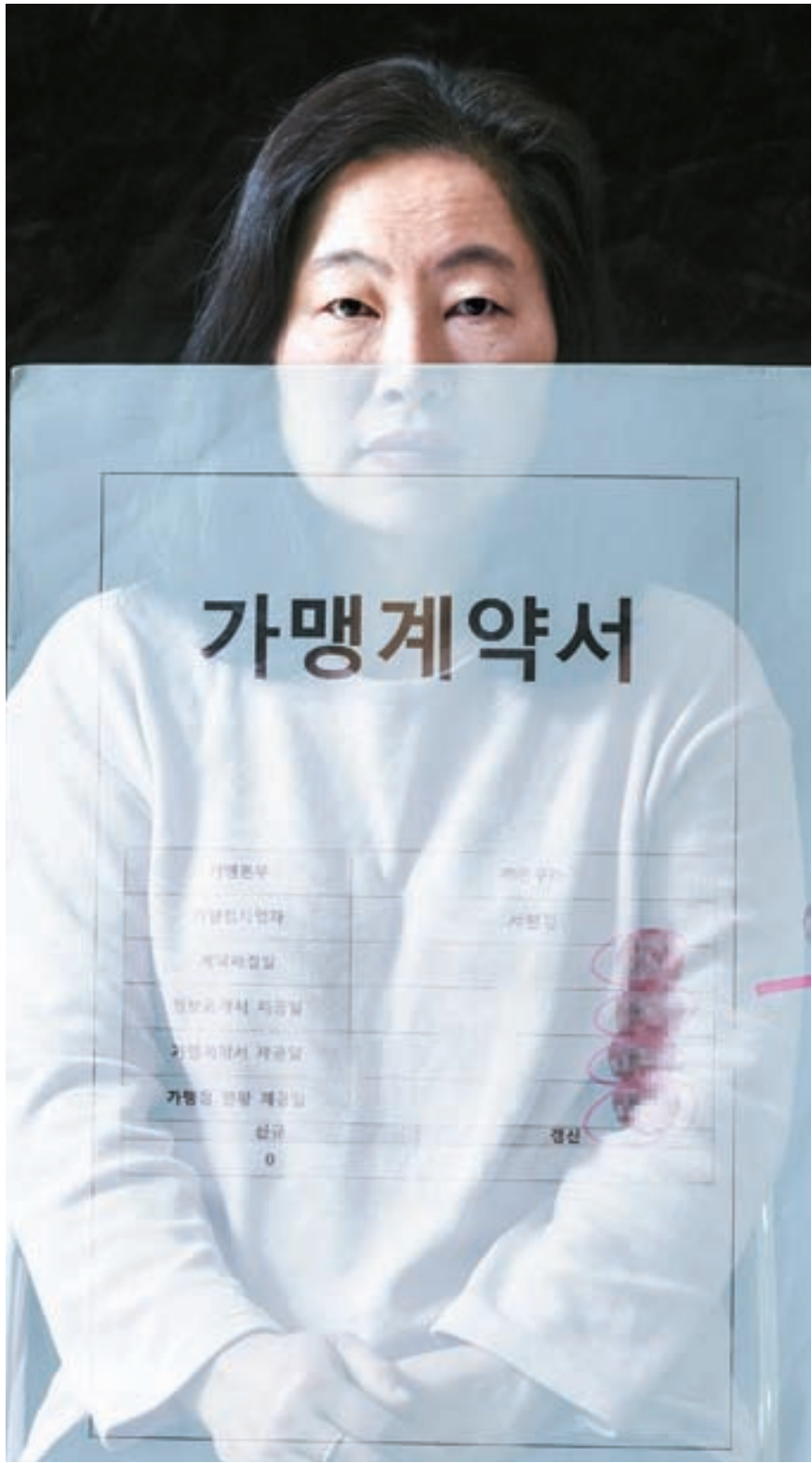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정산금 떼인 점주들, 1억 빛에 갇히다

(프랜차이즈)



만쿠라 가맹점주였던 서현정씨가 가맹계약서를 공개했다. 본사 파산으로 휴지가 된 종이뭉치 앞에서 점주 50여 명이 피 같은 눈물을 쏟았다.

만쿠라 가맹점주 50명, 총 50억 피해
월수 600만원 홍보, 실제로는 4분의 1
투자금만 받고 개점 안 해주기도
본사 파산... “줄돈 없다”에 또 눈물

“혹시 거기도 정산금 안 들어와요?”
전화를 받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당했다는 걸. 서현정
(51)씨는 다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넣었
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말문을 막았다.
“다른 점주랑 연락하는 거 계약사항
위반인 거 알아요? 위약금 내고 싶어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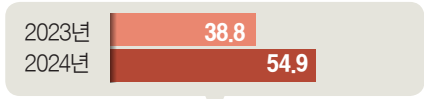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다. 2022년 말
현재 전국의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
에 이른다. 2019년 25만8889개이던 가
맹점 수는 ‘코로나19’의 저항조차 가볍
게 뚫어내면서 상승일로다. 가맹본부
는 8759개, 상표(이하 ‘브랜드’)는 1만
2429개에 이른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
다. 악덕 사기 업체도 무수히 존재한다.
적은 초기 투자비용에 혹하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가는
썩짓돈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동뿌리까
지 뽐하기 일쑤다.

서씨가 ‘만쿠라’를 알게 된 건 2년 전
이다. 오규당·커스텀멜리·주바코·달크
랩·롤썸·롤리아·텐무스·산텐모리·오니
기리봉봉 등 술한 브랜드를 거느린 만
쿠라는 50여 개 백화점 음식 코너에 입
점해 있었다.

서현정씨는 ‘백화점 입점’에 혹해 가
맹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
점했다.

정영호(32·가맹)씨도 크게 다르지 않
았다. “월 600만원은 충분히 벌 수 있
다”는 만쿠라 측 호언장담에 계약을 체
결했다. 그는 2022년 8월 충청 지역의
한 백화점에 만쿠라 브랜드 중 하나인
만보스키우동을 개점했다. 개점과 동
시에 만쿠라 본사가 1100만원을 일시불

본부와외의 불공정거래 경험한 가맹점 비중
단위: %, 가맹점주 4567명 응답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유형 ※중복응답	
매출액 등 정보 부풀려 제공	20.5
광고비 등 부당 전가	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 미제공·지연	12.1
계약 관련 중대한 정보 은폐·축소	11.8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제공	11.4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제한	11.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로 가져갔다.
그러나 실제 월수입은 150만~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정산도 늦어 늘 현
금이 빠듯했다. 급기야 지난해 3월부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만쿠라 본사는 점포 개점 때 목돈
을 받아 운영하던 구조라 마구잡이로
점포를 개점했어요. 그러다가 포화 상
태가 돼 추가 개점이 어려워지니까 돈
줄이 막힌 거죠. 막판에는 돈만 받고 개
점을 안 해주거나 심지어 한 점포를 놓
고 여러 명한테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
어요.”

정씨는 요령부득이던 본사 직원의
개점 초기 당부도 그제야 이해할 수 있
었다. “사장님은 대표 아니에요. 우리
회사 과장이예요. 아셨죠? 어디 가서
대표라고 하면 계약 위반이예요. 3000
만원 위약금 물어야 해요.”

왜 그랬을까. “프랜차이즈가 아닌 것
처럼 꾸미려고 계약서상에 점주들을
본사 과장으로 기재해 놓은 거예요. 형
식상 본사 직원점으로 돼 있어 가맹사
업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더
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백화점에서도 쫓겨났다. 백화점의 계
약 상대방이 본사로 돼 있어 정씨가 아

무리 사정해도 통하지 않았다. 정씨에
게 남은 건 미정산금 4700만원과 눈덩
이처럼 불어난 빚 1억2000만원뿐이다.
서씨 역시 6000만원의 피해를 본 채 문
을 닫아야 했다.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가맹점주들은
50여 명에 이르며 추산 피해액은 총 50
여억원이다. 본사는 대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결국 법인 파산신청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파산 채권
자 집회는 눈물바다였다.

“여러 피해자가 대성통곡했어요. 10
억원의 피해를 본 분이 있는데 ‘아침부
터 밤늦게까지 뺨뺨지게 일만 한 게 죄
냐’며 평평 우셨어요. 만쿠라 대표 김
모씨는 경호원 2명을 대동했고, 집회가
끝난 뒤 도주하다가 점주들한테 붙잡
혀 옷이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판사가
다 이야기했잖아. 줄돈 없어’라고 큰소
리치더라고요.”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
사는 채무를 대거 탕감받았다. 법원이
변제에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8억~9
억원도 만쿠라 직원 등 선순위 채권자
들이 대부분 가져갔다. 후순위 채권자
였던 점주 50여 명에게는 겨우 총 2억원
이 돌아왔다. 그것도 물품 공급업자 등
30여 명과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 서씨
가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대
표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인데
영 시원치 않아요. 계약 이후에는 손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김씨의 재산 차명
이전 의혹도 있는데 수사해야 밝히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김씨는 중앙일
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설치기사로 일하면서 겨우 부인과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정영호씨는
아픔이 좀 더 크다. 임신 7개월이던 부
인이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함께 갔다
가 충돌 과정에서 그만배 속 아기를 잃
은 것이다. 정씨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
했다.

특별취재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이익 불균형’...물류마진 아닌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한국 프랜차이즈(이하 프차) 산업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의 이익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가맹점이 잘못되면 본
사, 즉 가맹본부도 잘못돼야 하는데 그
렇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이란 것
이다.

본사 수익이 물류마진(물류 공급가
에서 매입가를 뺀 차액), 즉 ‘차액가맹
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다. 가맹점

수 확대나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품목’의 확
대 또는 공급가 인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가맹점은 매출이 많은 적
든 본사로부터 필수품목을 일정량 이
상 사야 한다. 문 교수는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물품 장사를 한다는 게 한국
프차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대표
도 “한국 프차는 물류 유통회사”라며

“가맹본부 한 곳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
를 출시해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도 물
류비를 아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 결과는 상호 불신이다. 공정위의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파
르면 가맹점주 4567명 중 54.9%는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고 응답했다.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78.7%가
“있다”고 답했다. 정준영 중앙대 경영
학과 교수는 “본사가 독점적 지위를 악

용해 합법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꼬
집었다.

물품대금의 카드 결제 제한, 각종 수
수료 전가 관행, 할인·광고·판촉 행사
참여 강요도 불신을 키운다. 정연승 단
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뢰가 없으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관행이 지속
하는 것”이라며 “상호 소통과 협의 강
화를 통해 가맹 산업의 질적 성숙을 끌
어낸 뒤 수익 구조를 로열티 방식(가맹
점 수입의 일부를 일정 비율로 받는 방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요구도 꾸준
히 나온다. 점주 단체가 구성된 프차는
18%에 불과하며 본사가 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
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
위원장은 “양측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상당수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남을 끌어낼, 최
소한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US아주투어 **마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최신형 VVIP버스를 운영합니다!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서울 02-522-8686 ■info@usajutour.com ■무로픽업 가든그로브, 놀워,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가족, 친구,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마주 항공부** 한국행 항공 마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은 아주!

40년을 아주 명품 유럽 **북유럽 서유럽 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빛어만든 아주 좋은 이유! **서유럽 2인 입체 항박가이드! 전일정/전구간**
함께해 인솔자가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언제든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아주투어!

100년의 역사를 무료로 드립니다
서유럽 11일 투어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식물성 **고리 올리브 비누**를 1가정 당 1개씩 드립니다. 40여년 유럽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건 수령은 피렌체에서 로마가는 길에 수령 가능합니다

서유럽 11일 \$3399+항공료
7일 \$2299+항공료
▶3/20, 4/3, 17, 5/1, 15, 6/5, 19, 7/8, 29
8/12, 9/2, 16, 30, 10/14, 12/21
아주투어는 전일정 네임드 호텔만 사용합니다!
런던 1박(힐튼) | 파리 2박(Pullman Paris) | 스위스 1박(선스타) | 로마 3박(세라톤 로마)

영국일주+튤립축제(네덜란드) 12일
▶4/21 \$5899 ▶\$5199+항공료
인솔자 동행, 논스톰 왕복항공 포함, 특급호텔, 네덜란드 튤립축제 참관 등.

영국일주 10일 \$4899 ▶\$4399+항공료
▶4/21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튀르키예/그리스일주+산토리니 13일 \$3199+항공료
▶4/8, 5/13, 6/3, 9/16, 10/7
튀르키예일주 10일 \$1699+항공료
▶4/14, 5/20, 6/9, 9/22, 10/13
그리스일주+산토리니 6일 \$1999+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항공료
▶4/19, 5/8, 9/10, 10/1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항공료
▶4/2, 30, 5/14, 6/4, 9/9, 23, 10/15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999 ▶\$4999+항공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5/19, 6/4, 16, 7/15, 8/5, 19, 9/2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4199+항공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5/19, 6/4, 16, 7/15, 8/5, 19, 9/2

발틱3개국 6일 \$2199 ▶\$1999+항공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5/27, 6/12, 24, 7/23, 8/13, 27, 9/10

동유럽/발칸 13일 \$3299+항공료
▶4/18, 5/2, 23, 6/13, 7/11, 8/1, 9/4, 18, 10/2, 16
동유럽일주 7일 \$2099+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일주 9일 \$2599+항공료
▶4/22, 5/6, 27, 6/17, 7/15, 8/5, 9/8, 22, 10/6, 20

시칠리아/몰타 10일 \$3399+항공료
▶3/12, 4/29, 6/11
스위스일주 7일 \$4399+항공료
남프랑스 8일 \$3999+항공료
▶4/21
영국+스위스일주 15일 \$8999+항공료
코카서스3국 11일 \$3499+항공료
▶4/17 아르메니아/조지아/아르메니아

주억이 달라지는 여행!
US아주투어
CST 2052210-10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게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ajutour.com
Instagram

'25 VVIP버스 도입기념! L.A. 출발상품으로 항공료 불포함 가격

홍도관광 (65세 이상) 샌디에고 사파리 동물원 당일 선착순 400명, 입장료+점심 포함 ▶2/25, 28 \$99	꽃구경(블라섬) 당일 아몬드 꽃구경 ▶3/1 \$129	꽃구경 2일 ▶2/25, 27 \$299	태평양 기차여행/레드우드 2일 ▶2/25 \$449 ▶\$359	세도나/몬테주마 캐슬 3일 ▶3/11 \$549 ▶\$399
--	--	---	--	--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VIP 버스** **2. 초특급 5 a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 남만포차 거리, 축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갈치구이, 흑돼지구이 특식 2회), 국제시장, 울산 웅기마을, 경주 불국사,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부영 호텔 (신라 기능) **제주 3일** **서해/제주** **동해/제주**
음식 포함 ▶일 \$499 7일▶수 \$1499 6일▶일 \$12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동해/부산 4일**
▶수 \$999+항공료 ▶화 \$799+항공료

라디오 서울 창사 33주년 기념! 아주관광 함께합니다!
2025 봄꽃 **벚꽃일주 7일** ▶3/26, 4/2 \$1599+항공료
경북권 한복 입고 관광, 청라대, 롯데 타워, 민속촌, 산정 한방 체험, 남해 벚꽃 관광

일본일주 7일 ▶3/18, 25 \$1899+항공료
신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호텔조식 및 특급식사, 인천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동행

벚꽃일주+베트남/캄보디아 14일 **벚꽃일주+일본 14일**
▶3/26, 4/2 \$2799+항공료 ▶3/18, 25 \$35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2/28, 3/7, 21, 4/1, 16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툼섬,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왓, 톤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새 5성 호텔! 폰테인블루 숙박
아주단독! 라스베가스 스피어
아주로만 가야하는 5가지 이유!

1. 새 5성급 호텔 라스베가스 폰테인 블루 숙박!
2. 한인 유일의 컨트랙트 라스베가스 스피어!
3. 꼭 확인하세요! 라스베가스 2박만인지!
4. 최신형 버스! 32인승 새 VVIP 버스!
5. 단독 컨트랙트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미서부완전일주 7일 ▶월 \$1469+항공료
2개 상품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텔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벡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텔롭캐년 4일
아주단독! 페이지 햄튼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월 \$809+항공료
미서부 투어의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월 \$889+항공료
레디슨,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벡 등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월 \$1339+항공료

미동부 뉴욕맨하탄,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5일 ▶수, 토 \$1150+항공료 **8일** ▶수, 토 \$1700+항공료
올드퀘벡 숙박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힐튼호텔/엘로스톤 시내 숙박! 아주단독! 최신형 대형버스 보장!
엘로스톤/그랜드티톤 4일 **항공료 포함** \$1299
아주단독! 강가 신축 힐튼호텔, ▶첫출발 5/12, 매주 월, 금
한인관광사 유일 엘로스톤 시내숙박, 전일정 호텔 조식은 아주 뿐!

출발보장! 밴프 숙박 보장!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캐나다 록키 6일 **발데즈알라스카 6일**
▶매주 월 \$1199+항공료 ▶매주 월 \$1699+항공료
록키 5대 호수를 가는지 꼭 확인!
모래인 호수, 페이토 호수, 보우 호수
루이스 호수, 에메랄드 호수
미국의 스위스! 발데즈 숙박, 연어회+와인특식, 세계최대 국립공원 (세계 최고 육지마타네스카 발하)

큰바위얼굴/크레이지호스 4일 **항공료 포함** \$1499
▶5/23, 7/4, 8/29

마주 크루즈

얼리버드 할인예약!! 크루즈의 특성상 오래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해야 안심! 됩니다! 크루즈도 아주가 정답입니다!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아이슬랜드/그린랜드 크루즈+레이카비크 14일
\$5350 ▶8/20(2월 28일까지 예약시) \$5799 ▶6/10

로얄 프린세스호(14인5선트론)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만세 포함
알라스카 8일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499+항공료

바하멕시코 5일 **멕시코라비에라 6일** \$549
▶4/28, 5/12 \$499 ▶2/25, 6/3, 7/15, 8/12, 9/9, 10/2

롱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롱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서지중해발코니 10일 **웨스턴카리브해 8일**
▶3/26, 10/31 \$3099 ▶5/24, 각주 토 \$1099+항공료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가이드 동행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4개국
14일 ▶5/12 \$5900+항공료
특급호텔
특전: 전일정 식사, 부하라 공연식, (몽골) 허르히, 사브사브, 열차/국내 항공료 포함, 유람선, 곤돌라
몽골: 낙타투어, 전통공연, 전 입장료 포함

중앙아시아 3개국 12일 \$4900+항공료
▶5/12 **특급호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남미일주 13일 ▶3/20, 4/12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3/20, 4/12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양가, 마추픽추, 나스카 ▶3/12, 4/7, 21 \$2199+항공료
멕시코시티&중부 5일 ▶월 \$1249+항공료
우유니사막(블라비아)+페루일주 10일 ▶3/12, 4/7, 21 \$3899+항공료

코스타리카 6일 \$1149+항공료
▶3/10, 17, 24, 31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론 온천욕, 호텔 식사, 로스라고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루시브)**
4일 \$1100+항공료 **5일** \$1500+항공료 **6일** \$1900+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 캘리포니아) ▶2인이상 수시 **올인루시브**
4일 \$1050+항공료 **5일** \$1350+항공료 **6일** \$1650+항공료

아르헨티나 & 칠레 파타고니아 **가이드 동행!**
파타고니아 15일 \$11900+항공료
&빙하탐사 크루즈 **특급호텔** ▶4/10, 11/6, 12/4
여기를 알면 파타고니아를 만난 것! 토레스 델 파이네! 기막히게 멋진 국립공원 **푸에르토 나탈레스!** 지구의 최단단 **빙하마을 우수아이어!**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칠레 파타고니아 \$8449+항공료
▶4/10, 11/6, 12/4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숙박! 대피라미드!
성지 순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7일** \$5499+항공료
▶11/10 **전문 가이드 동행/전일정 입장료 포함**

이집트/요르단 12일 **이집트일주 9일**
▶3/13, 11/10 \$3999+항공료 ▶3/13, 11/10 \$3299+항공료

동남아&일본 아주에서 가시면 안심입니다! 한국지사서 목적을 골라 편안하고 알찬 일정으로 모십니다!
일본일주 7일 \$1899+항공료
▶3/18, 25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태국/캄보디아/베트남 12일 \$1700+항공료
▶3/24, 4/14, 10/20, 11/3, 11/17

하와이/마우이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픽업 호텔조식, 오후우식 일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메리엇** **해트 리젠 와이키키** **세라톤 와이키키**
4일 \$949+항공료 **4일** \$1149+항공료 **4일** \$1249+항공료 **4일** \$1399+항공료
5일 \$1099+항공료 **5일** \$1349+항공료 **5일** \$1499+항공료 **5일** \$1749+항공료

세랑게티 & 초베 & 응고응고 국립공원 사파리 **아주관광 단독료 보장**
아프리카+UAE 두바이 **16일** ▶10/15, 2/20/26 \$9999+항공료
베트남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맛집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미국회사 \$25,000 밸류 특별세일(3월 3일까지)
남태평양 **A 피지/호주/뉴질랜드** **B 뉴질랜드/호주**
A 13일 \$3799+항공료 **B 11일** \$3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3/18, 4/9

인도/네팔 14일
▶11/10 \$4899 ▶\$4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600 할인전시
NO 옵션, 델리 IN & OUT, 국내선 항공 5회, 전일정 5성급호텔, 전통식 & 호텔식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요금은 US아주투어 웹사이트 www.usajutour.com에 명시되어 있듯이 필수 서비스 Fee가 불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장기 투표지’ 진실 20세 알바의 스탬프

〈투표 보조 사무원〉

부정선거 팩트체크

5년전 총선때 관리관 날인 뭉개져
만년도장, 스탬프 묻혀 적으면 번져
당시 20세 알바 “적색 스탬프 썼다”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총선 직후 일부 낙선자가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엔 이를 믿는 사람이 드물었으나,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를 웃돌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의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열성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표 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친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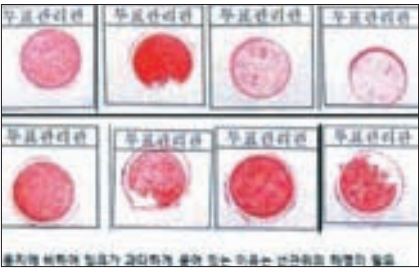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장기 투표지’다.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말한다. ‘일장기 투표지’가 처음 발견된 건 2021년 6월 인천 연수를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장에서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패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다. 이날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날인이 뭉개진 투표지 294장이 발견돼 무효표로 처리됐다. 민 전 의원은 “도장을 찍은 공무원도, 이를 본 사람도 없었다”며 “투표장에도,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과연 4·15 총선 당일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H씨였다. 그는 2022년 5월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영(印影)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민 전 의원에 힘을 보태는 증언이다. 취재팀은 H씨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사코 취재를 피했다.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판기록에 남아 있다. H씨가 직접 투표관리관 관인(官印)을 찍지 않고 “사무원에게 찍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투표소엔 2명의 사무원이 있었다. 당시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투표사무원 중 1명인 20세 대학생 A씨가 2022년 4월 29일 재판정에 나왔다. 당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아르바이트로 투표사무원을 했던

A씨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취재팀은 A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A씨의 부모는 “취재를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법정 출두하기 전, 선관위 측 변호인에 자필 답변서를 쓰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길림 변호사는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서면 질의응답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A씨는 H 관리관을 대신해 옆에 앉은 다른 사무원과 번갈아가며 투표지에 도장을 날인했다. “장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투표관리관의 관인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따로 인주나 스탬프를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도장’이다. 하지만 A씨는 어떤 이유에선지 ‘스탬



일장기 모양 날인 주위로 동그란 ‘링’이 이중으로 찍혀 있다. 도장업체 측은 “스탬프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했다. 『STOP THE STEAL』 캠페인 ‘프’를 묻혀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는 “도장을 찍으면서 적색 스탬프를 일부 사용했으나 인주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질의응답서에 적었다. 만년도장에 인주나 스탬프를 묻히면 결과물은 뭉개져 찍혀 나오고 ‘일장기’처럼 보이게 된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QR코드 동영상 참조〉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A씨는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질의응답서에서 ‘(인영이 번진) 투표관리관 날인 모양을 본 적 없다’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A씨가 취재에 응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투표관리관에게 문제 제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의 질의응답서에도, H 관리관의 법정 진술에도 공통적으로 “아무런 보고

부정선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일장기 투표지’ 의혹을 검증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만년도장을 스탬프로 찍어 날인이 뭉개지는 과정을 실험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팩트체크는 수시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가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결과적으로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아 정상적인 투표지로 분류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됐고, 개표에서는 유효표로 분류됐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돼 무효처리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A씨는 왜 스탬프를 묻히며 날인했을까. 그는 “만년도장이 흐리게 나온다면 책상에 있는 적색 스탬프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다. 투표소 현장책임자가 투표사무원에게 잘못된 교육을 한 셈이다.

만년도장에 스탬프를 찍으면 백발백중 도장이 뭉개지는 것일까. 경기도 일산에서 32년간 도장가게를 운영 중인 L씨(58)는 “만년도장은 일반적으로 1000장 정도 찍으면 잉크가 떨어질 수 있어 리필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적색 스탬프에 찍어 썼다면 전체가 똑같이 벌겋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장가게 점주 P씨에게 “일장기 투표지” 사진을 보여주자 “일장기 모양 주위로 동그란 테두리가 찍혀 원형이 2중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스탬프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했다. 만년도장은 바깥 테두리보다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만 찍히는 것인데, 스탬프를 묻히면 안쪽뿐 아니라 바깥 테두리에도 잉크가 묻어 동그라미가 2중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일장기 투표지’를 주장한 사진이 오히려 스탬프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 셈이다.

‘일장기 투표지’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A씨의 진술은 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걸까. 2022년 4월 29일 천대엽 대법관은 ‘직접 행위자’인 A씨야말로 ‘핵심적인 관련자’라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

측의 반대 때문이었다. 원고(민 전 의원) 측 권오용 변호사는 “피고 측(선관위)에서 날인 과정에 대해 해명도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사무원이 날인 했노라 하고 정보도 없이 증인신문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신 H투표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인영이 번진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는 그의 법정 발언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A씨가 스탬프에 찍어 날인했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공개됐다면 ‘일장기 투표지’ 논란은 다른 국면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판부는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무효처리된 294장의 ‘일장기 투표지’도 민 전 의원 137표, 정일영 당선인 111표 등으로 나눠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A씨의 법정 진술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훗날 의혹이 증폭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

취재 결과에 대해 민 전 의원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민 전 의원은 “열골을 드러내지 않는 투표사무원의 진술로 우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매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사람으로 판단해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 없다”는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김민욱·정세희 기자

개헌 구체적 언급 없는 이재명… 정대철 “전화하면 피해”

〈한정회장〉

김동연·김경수 개헌 압박에도 회피
친명 “개헌 언급 적절한 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현재, 이 대표는 개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며 “(개헌 관련) 논란이 생기면 좋아할 집단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개헌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정대철 한정회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대부분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 개헌이 된 적 없지 않느냐”며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개헌할게”는 사실 ‘개헌 안 할게’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회장은 “개헌을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만 우선 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려고 전화

를 하면 요즘은 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명계도 개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적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연일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이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까지 이슈로 떠오르면 내란 극복, 탄핵과 같은 이슈가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 Day PENDING

\$1.2M

Corner Lot,
Beautiful House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2 Assigned.
Lake Ridge, Many Upgraded

애난데일 싱글홈

COMING SOON

\$880,000

방3, 화3, Split Level
굿 로케이션, 울수리 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중도보수론 밀어붙이는 이재명… ‘여당=극우’ 프레임 가둔다



주요 정당 지지도

단위: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자료: 한국갤럽

정당	12월 1주	3주	1월 3주	2월 2주	3주
더불어민주당	37	48	39	39	40
국민의힘	27	24	36	38	34



원고 든 여당, 응원봉 든 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 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전국청년당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뉴시스]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며 ‘민주당 중도보수론’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위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말한 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반발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연일 “중도보수론”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의 가치 지향은 실용주의→중도→중도보수로 변화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실용주의는 정책의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실용주의 중도를 넘어 중도보수로까지 넓어진 건 최근 정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 지도부 회의 등에서 “국민의힘이 극우화하면서 보수 영역이 비어 있다”는 얘기가

최근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당 회의에서 “비어 있는 보수 영역까지 울타리를 크게 쳐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지금 같은 국민의힘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쪽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52시간제 예외’ ‘25만원 지원

금 포기’ 등 우클릭 정책이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물러선 것과 달리 ‘중도보수론’은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고, 보수층을 포섭할 수 있기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전남 신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 토대 위에서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민주개혁 정당으로 자리 잡아왔고, 지금도 그런 민주당의 정체성은 확고히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발언에 대해 “제 말씀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에 여당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을 현란한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페이스북에 쓴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라.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 중도 이동한다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 받는다”는 글을 지목했다. “선산(민주당 가치)을 자기 혼자 살기 위해 헌신짝처럼 팔아버리는 것”(김기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성민 기자

여당, 중도 지지율 하락에 “검히히 수용” 당내선 “지금은 내부분열 최소화 중요”

여당, 조기대선 공개언급 못해 미적 안철수는 “이대로 두면 우리당 위험” 권성동 “현재 결과나온 뒤 입장낼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빠진다”는 질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지표를 대대적으로 인정하고 검히히 수용한다”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추세를 평가하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중도 확장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엔 “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우리 당은 수도권·청년·중도 중심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영장 쇼핑’ 의혹 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취재진 질문은 주로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보수 지지 이반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2월 3주차 조사에서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답변은 53%,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답변은 37%로 양자 간 차는 16%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이 해당 조사를 처음 실시한 1월 3주 이래 가장 많이 벌어졌다. 2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중도층의 정권교체 여론은 55%로, 정권 재창출 여론(29%)을 압도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도층의 보수 이반 경향이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

수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외려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당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가 정진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 커녕 안방까지 내줄지 모른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으로 내몰린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썼다.

여권이 중도 확장에 미적거리는 데엔 윤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하는 조기대선을 공개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과 이후의 당의 대책을 묻는 말에 “예단을 가진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현재에서) 각각이든, 인용이든 결과가 나온 이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당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당도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명태균 “오세훈 청국장·장어집서 만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옥중에서 여론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비용 대납 의혹을 고리로 두 시장을 표적으로 삼자 국민의힘에선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병풍 조작’ 같은 여론몰이”란 반발까지 나왔다.

명씨는 지난 17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이 이송된 뒤 오세훈·홍준표 시장 고소를 예고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치날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지난 20일 입장문)면서다.

명씨는 오 시장의 경우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포함된 3자 회동을 포함해 2021년 1~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오 시장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명씨에게 오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021년 2~3월 총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오 시장 측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여론조사 조작을 요청받았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후 어떤 부탁도 의논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선 “사기꾼의 거짓말”이라

며 “거듭 강조하지만 3자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직접 반박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것은 두 번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 특보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명태균이 옥중에서 오 시장을 중국집·청국장집·장어집에서 만났으며 식당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줬는지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이 지난 20일 라디오에서 “명씨가 오 시장과 〇〇〇이라는 중국집에

서 만났고, 간장에 계란 반숙 전 단계 요리를 좋아했다. 청국장집과 장어집에서도 만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2의 생태탕 기도’라고 하면서다. 홍준표 시장 역시 홍 시장 아들의 고교 동창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개월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부장으로 11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4600만원을 사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손국학·정진우·안대훈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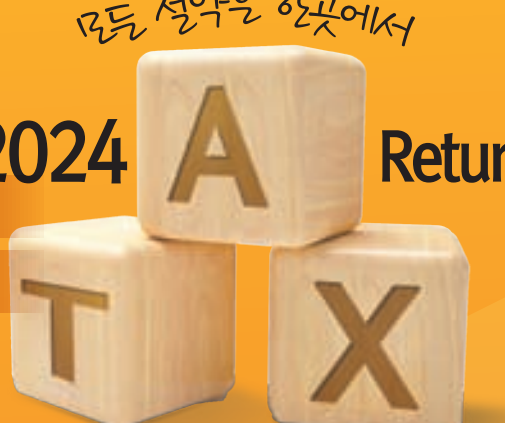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고궁 찾은 인도네시아 관광객
한복을 입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기상청은 24일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뉴스식]

이재명 “연금개혁, 합의 안되면 강행” 27일 처리할 듯

이, 20일 여야정협의회서 연금 권영세 “매번 강행처리나” 불만 여야 소득대체율 첨예하게 대립 “최대한 협상할 것” 타결 여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여(42%)·야(44%)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민주당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 강행 처리

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복수의 국정협의회 참석자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 면전에서 ‘결국 안 되면 우리가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도 44% 얘기하지 않았었냐’고 하고 우 의장이 ‘이번에 모수(母數·주요 숫자) 개혁을 합의하고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었다”며 “강행 통과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는 노

후에 받는 연금액을 정하는 소득대체율(현행 40%)에 막혀 공전 중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또 그간 정부·여당이 도입을 촉구해 온 자동조정장치(기대여명·가입자 수 변화 등에 연동해 연금액 정기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국회 동의로 발동’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소득대체율이라는 한 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44%는 민주당이 기존 당론(45%)에선 살짝 물러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야당 안은 상황에 따라 나뉠 수 있다”며 42%를 고집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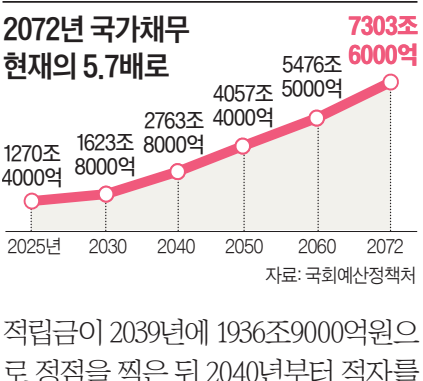
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43%+자동조정장치’까지는 검토할 만하다”는 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50%를 주장하고 있다. 44% 아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된 보험료율 13%만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새로 연금개혁특위를 꾸려서 논의하자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럴 시간이 없다.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반응했다. 다만 여전히 여야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 42%는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최근 이 대표가 조금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금방 말을 바꾸는 양반이라 과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소득대체율 관련해서는 저희도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막판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줄줄이 단독 처리해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6일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남은 기간 최대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7년 바닥”… 2년 앞당졌다 원복

국가채무 2072년엔 7300조 “인구구조 지킬 수 있는 정책 필요” 국가채무가 약 50년 뒤 7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바닥난다는 예측과 함께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1270조4000억원

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약 5.7배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50년 107.7%, 2072년 173%로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의 결과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선 나랏빚을 계속 내야 하기(국고채 발행) 때문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누적



보다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예정처는 2022년 전망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다. 이듬해 2055년으로 앞당겼다가 이번 전망에서 최신 인구추계와 기금 실적 등을 반영해 다시 2057년으로 늦췄다. 다만 예정처는 인구가 예상보다 덜 줄어들었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출산율 등이 높은 ‘고위’ 시나리오에선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이 중위보다 9.7%포인트 낮은 163.2%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 중위 추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이재명 “식구끼리 비방하면 누가 좋나”…강성 지지층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는 23일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논쟁이 어려워진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향한 과도한 공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 주장 중에) 팩트가 틀린 것이 있으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을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며 비방이 과열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

했고,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팁’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에서는 논쟁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두고 당내 정체성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경우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정체성 공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서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

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피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헌정 회복, 법치수호, 성장 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채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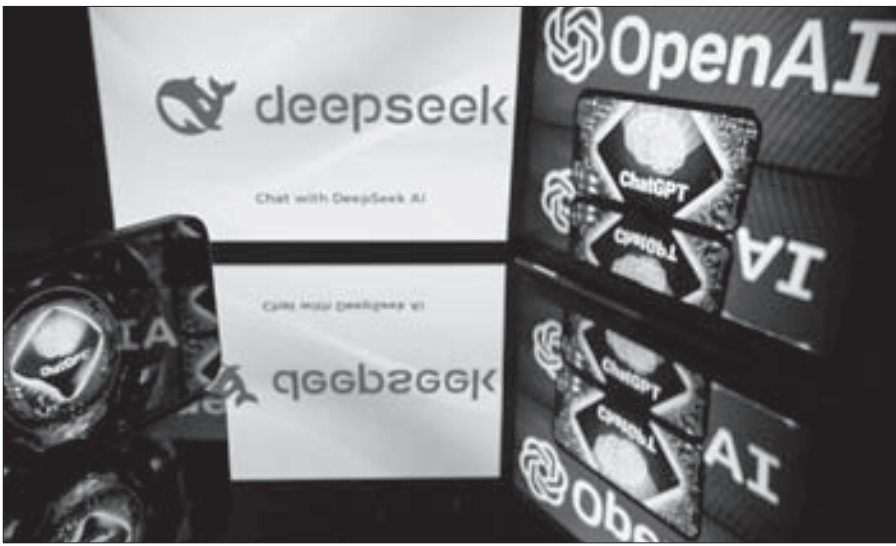
트럼프도 시진핑도 뛰는 AI 시대…한국도 지도자 나서야

딥시크 충격이 거세다. ‘넵사벽’ 같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우세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미·중 AI 패권경쟁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산업은 물론 외교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차원의 경쟁이다. 자칫 AI 생태계가 쪼개지며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다. 한중비전포럼은 21일 서울 HSBC 빌딩에서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AI 시대 한국의 나아갈 길을 살펴봤다.

트럼프, 빅테크 규제 풀고 중국은 제재
▶김상배(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발제)=미·중 AI 패권경쟁을 세 차원에서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플랫폼 경쟁’이다. AI 기술 투자에서 미국은 민간이 앞서지만, 공공투자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또 미국이 중국 고립화를 추구하자 중국은 독자적 생태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인터넷이 둘로 쪼개지는 ‘분할인터넷(Splinternet)’이 출현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규제-담론 경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이면엔 중국이 생성형 AI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중국도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이다. AI 제품을 수출하며 중국의 AI 규제 표준도 함께 전파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려 한다. 세 번째는 ‘외교-군비 경쟁’이다. 미·중은 이미 첨단무기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AI 군비경쟁은 냉전 시기 핵무기 경쟁에 못지않게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도래를 초래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 빅 테크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국에 대해선 안보 프레임에 앞세워 제재를 강화하는 외강내유(外剛內柔)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AI 국가책략을 마련하는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어 기반의 토종 AI 개발을 위한 자체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어 개방적 생태계에서 패쇄적으로 바뀌는 플랫폼 경쟁에 대응할 자국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AI 분야의 안보와 주권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경쟁력은 기술 응용에서 나와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 사회)=AI 분야는 일찌감치 미국이 주도해 앞으로 한동안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속하지 않겠냐는 전망



AI는 오늘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일의 패자가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왼쪽은 중국 딥시크와 미국 챗GPT 로고. 오른쪽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콘퍼런스 모습.



[AFP·로이터=연합뉴스]

미·중 경쟁에 AI 생태계 쪼개질 판
강대국 관심은 AI와 핵무기 연계
한국 살릴 유일한 길은 AI 공교육
우리 과학인재 승부근성 깨워야

크가 충격적인 건 가성비 때문만이 아니라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데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실력 있는 토종 엔지니어 중심으로 혁신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혁신은 애플, 전기차 혁신은 테슬라로 인해 가능했는데 이번 AI 혁신은 국산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경우다.
▶이희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의 과학 인재 교육은 충격적이다. 10세 아동에게 중국 과학기술의 최고 지도자인 원사를 매칭시켜 지도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에는 15세 학생을 입학시켜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도록 한다. 중국이 AI 발전과 관련해 정부 간 칸막이를 없앤 것도 눈에 띈다. 우리는 전략 부재다. 총체적 플랜 없이 임기응변에 급급한 모양새다.

추격자 한국은 AI와 제조업 접목해야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장=AI 분야에서 우리는 추격자 위치에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한국은 자신의 강점인 제조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중국이 추월한 전통 제조업이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AI를 통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격차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강점인 AI 반도체나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응용산업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몇 해 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를 만났을 때 “미국은 혁신이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나지만, 중국은 전역에서 일어나 곧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설마 했는데 최근 딥시크 충격을 겪었다. 한국은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주 52

시간제를 깨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승부 근성을 되살려야 한다. 파격적인 연봉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딥시크 쇼크는 수학 잘하는 천재 한 명이 100% 토종 139명을 이끌고 해냈다. 우리는 영재들이 다 의대로 간다. 결론은 돈이다. 딥시크의 신입 초봉은 5억 5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 사이다. 국회에서 52시간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지금 100시간 해도 모자란다. 또 딥시크를 정보보호 차원에서 막기로 했는데 아니 엔비디아와 구글도 다 쓰는 걸 우리가 왜 막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AI 기술은 ‘파괴적’ 혁신을 초래할 전망이다. 파괴의 의미는 양면적이다. 기존 장벽과 한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역량과 가능성을 창출하는 혁신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뜻할 수도 있다. 이를 통찰하고 토론할 리더십과 공론이 필요하다.

미국 주도 생태계 벗어나는 건 불합리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세계는 이미 AI를 통한 경제 전쟁, AI 허위정보를 활용한 인지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추세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분리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선 우리가 미국 주도 생태계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AI의 군사-안보적 성격 때문이다. AI 시대 한미 군사협력의 업그레이드는 연합 방위 시스템의 상호연동성이 중요하기에 미국 주도 AI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생기면 AI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군사 분야에서 AI 사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강대국 간 관심은 AI가 과연 언제 핵과 연관되느냐 하는 점이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중요한 최전선에서 AI가 만에 하나 치명적인 살상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연결될 때 관건은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절대로 기계가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강대국과 우리의 입장이다.

▶이석배 전 러시아대사=지난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실시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한·미·일이 점차 군사통합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결국엔 다중 지휘 체계로 발전할 것이고 거기에는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선 트럼프가 말하는 새로운 동맹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트럼프는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상반기에 트럼프 정부의 모든 통상정책이 결정된다. 우리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어도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와 전화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매꿔줘야 한다. 현재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AI 공교육이라 본다. 앞으로 4년 동안 AI 선도 교사 40만 명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AI 교실 혁명을 위한 것이다. AI 교사와 현실 교사가 같이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가정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는 셈이 된다. 수준별 학습이 교실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

파격 인센티브로 과학 영재 유치해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AI 시대는 피할 수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리드를 하느냐의 문제라 생각한다.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치 리더십이 다시 개입해야 한다. 내편 내편 가를 때가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시기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뛰고 있지 않나. 결국엔 인재의 배분이 바뀌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를 유치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딥시크도 알리바바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훌륭한 국가다.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다시 한번 도약의 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매해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개인신설 싱글 레이크 비즈니스 골프장내 \$1,060,000
방4, 월4.5, 치고2, 4433 sqft, 2004, 0.3acre, 파라오, 스크린락

●앞다실금 \$1,250,000
방5, 월4.5, 치고2, 4,630 sqft, 2016,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집 같은

Open House

Pending in 1 Day

첼름리 타운 \$779,000
방4, 월3.5, 치고2, 2,900 sqft, 2005, 전부 업그레이드, 핸드우프트, 1st owner, 내부외부 잘 관리 최상 최고 학교, 코스코, 50/28, Dulles Airpor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개인신설 성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황계실 571-239-6054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 빌딩 3층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단어도 짝이 있다

우리 속담에 “짚신도 짚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짚이 있다는 얘기다.

단어도 마찬가지다. 단어도 저마다 타고난 속성이 있어 돌을 붙여 놓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있다. 앞말의 특성 때문에 뒷말의 선택에 제약이 온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의미상 선택 제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지개’다.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는 봄날이다” “기지개를 펴고 활기차게 움직여 보자” 등처럼 사용된다. ‘기지개’는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기지개’ 자체에 ‘펴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펴다’가 아니라 ‘켜다’와 결합시켜 ‘기지개를 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금’도 이런 단어 가운데 하나다. ‘양금’은 녹말 등의 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생긴 층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양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가라앉아 생긴 것이 ‘양금’이어서 더는 가라앉을 수가 없다. ‘양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와 같이 ‘가시다’는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하락세’도 마찬가지다. “하락세로 치닫고 있다”는 말을 참이 쓴다. “하락세로 내리닫고 있다”나 “하락세로 내닫고 있다”고 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세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형주칼럼

트럼프가 강조한 ‘힘을 통한 평화’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정부 출범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대통령 탄핵으로 더없이 실종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유지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채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체제의 강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의 최종적 방점이 중국 견제에 찍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본 시진핑 주석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 정상회담 필요성도 말하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화해와 소통을 강조하는 시그널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대 중국 견제 강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중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분명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및 일본의 안전을 분명히 지킬 것을 천명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북한관을 보여준다. 더욱이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론은 일단 유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구속 등 한국의 정치적 변수 속에 사실상 대미 외교가 접면 중단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아마도 대통령 탄핵이 없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일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함께 열렸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만큼 트럼프 2기에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성공을 위해서 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두손 두발 다 묶여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탄핵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탄핵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을 다 마치고,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을 셋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민국 외교팀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

열린광장

따끈따끈한 지과(地果)

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다.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이 그리워진다. 황해도 몽금포의 고향 집으로 돌아간다. 온돌방에 이불을 깔고 그 속에 발을 넣고 앉아서, 잿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지과를 먹으면 눈물겹도록 맛있었다. 황해도에서 고구마를 땅에서 나오는 과일, 地果라고 부른다. 그럴듯한 사투리다.

붉은 흙과 자갈이 섞인 땅에서 거둔 지과가 달고 맛있다. 사람보다 산돼지가 지과를 더 좋아해서 논제를 일으킨다. 녀푼이 무성하고 고구마가 메추리알처럼 달리기 시작하면 돼지와 싸움을 벌인다. 그들은 밤에 내려온다. 먹는 것은 좋지만 지과 밭을 일구어 망가트린다.

나는 밤에 발고랑에 거적때기를 깔고 잠을 잔다.
모기를 쫓기 위하여 마른 쭉을 피운다. 가끔 일어나
서 양철 대야를 두들긴다. ‘돼지야 물러가라!’ 교가

도 소리 높여 부른다. 돼지와 모기와 싸우다 보면
잠을 설친다.

이 지과를 수확해서 집 뒷방에 모신다. 광에 저장하면 지과가 냉동된다. 뒷방에 수숫대로 등글게 발을 치고 지과를 바닥부터 천정까지 쌓아 올린다. 겨울에 찌먹고, 구워먹고, 날것으로 먹는다.

봄이 되면 뒷방에 흙을 깔고 지과를 심고 물을 주어 싹을 낸다. 싹이 자라면 밭에 옮겨 심는다. 물 지게로 물을 길어다 싹 주위에 물을 부어준다. 허리가 부러지듯 힘든 일이다.

오늘도 점심에 지과를 한쪽 먹었다. 옛날 지과 맛이 나지 않는다. 배가 부른 탓이다. 요즘 모든 음식이 맛이 없다.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호호롭게 산다. 풀 단지에 쥐 다나들 듯 시장에 자주 가서 먹을 것을 사 온다. 더 넣을 틈이 없는 냉장고, 스위치만 돌리면 에어컨이 켜지는 집에서는 산다.

부에나파크에 사는 나는 오늘 아침도 마켓에 가다가 바로 담장 밖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걸어가 는 노숙자를 보았다. 비를 맞아 어기적거리며 걷고 있다. 어디서 잠을 잤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노숙자 는 미국의 골칫덩이이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도 화로에 눈 녹듯 흔적이 없고, 노숙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을 구제하는가. 열 손가락이면 밥 한 그릇을 만든다(십시일반:十匙一飯)는 말대로 모든 종교 단체가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 LA 한인 타운에 천주교 신부와 울타리 선 교회의 목사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단체의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높이 평가한다.

윤재현 전 연방정부 공무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	--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미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2월 4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뉴스타가 새롭게 소개하는 커머셜 리스팅

메릴랜드 안전지역

리커 & 와인 (건물포함)

주매상 \$5만

현재 주인 거의 일하지 않고 있음

비즈니스만 \$2만

메릴랜드 위튼지역

Beer & Wine

주매상 \$38,000

아주 안전한 지역

\$900K

버지니아 알링턴

일본 식당

새로 꾸민 식당

렌트 \$14,500

\$8만

테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찾은 고장으로 시도때도 없는 연락

렌트비가 늦거나 안보내는 경우

타주나 한국에서 관리가 힘든 경우

일 잘하는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세요!

맡기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뉴스타 매니지먼트에

맡기시면...

• 좋은 테넌트 선별과 선정

• 매달 렌트비 컬렉트

• 각종 수리

• 테넌트 사소한 문제 해결

• 고문 변호사와 테넌트 법적 분쟁 해결

• 해당 집/건물/주기적 점검/보수/수리

• 그 외 건물주 100% 대행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7



\$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고 모던한 새 집. McLean HS

8



\$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

9



\$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

10



\$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붕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

11



\$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12



\$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

13



\$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벨몬테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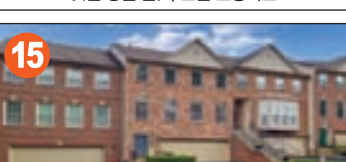
\$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

15



\$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며진 멋진 타운홈. 마루바닥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뜰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4



\$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

5



\$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6



\$680,000

게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넓은 뒷뜰

7



\$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 멋진 싱글 홈

8



\$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넬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쁜 집

9



\$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안나오는 집. 끝집.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

10



\$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3



\$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

4



\$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집

5



\$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체비체이스 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위 우체국 맞은편

RE/MAX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H1B 이민 사기 판결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

(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Q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

▶문= 비거주 외국인을 위한 상속 플래닝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들어 서울 지사에서는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재로써 6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게 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비거주 외국인(NRA)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망 시에 재산 분배를 위해 Probate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장이 18만 4천5백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긴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Probate(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 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찰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건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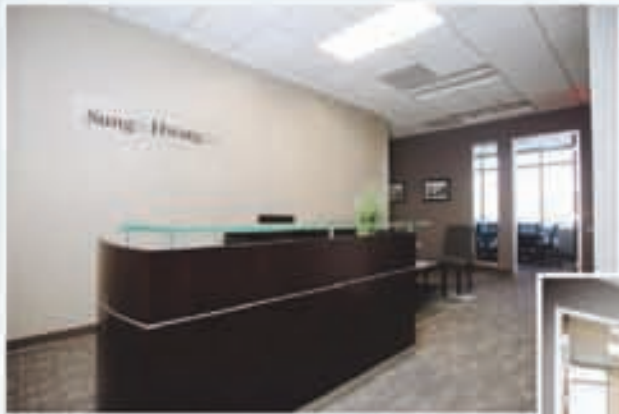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의료사고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Liquor License
• 보험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과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자동차 관세까지 골든타임 44일 ... “정부, 패키지딜 추진을”

〈트럼프 4월 2일 예고〉

“4월 2일까지 44일이 자동차 산업을 지킬 골든타임이다.”

16일 완성차 업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수입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 “4월 2일에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2일이 관세 적용 시점인지, 부과 계획을 밝히는 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동차 관세가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 기준 1위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 달러) 중 미국 수출액 비중이 49.1%(347억4400만 달러)에 달한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부터 한·미 양국은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량을 2020년 82만5071대에서 지난해 143만2713대로 73.6% 늘었지만, 미국은 같은 기간 6만7561대에서 4만4296대로 오히려 34.4% 줄었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는 49조800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패키지딜(일괄타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 전반을 협상 테이블 위에 놓고 미국에 역제안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주장이다. 현재 한국은 카타르·오만 등 중동 지역에서 LNG를 연간 898만, 46억47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어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 군함을 건조



백악관 내 숨은 트럼프 찾기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앞에 2023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소 당시 찍은 머그샷 액자가 걸려 있는 장면이 13일 포착됐다. [AFP=연합뉴스]

‘대미수출액 1위’ 자동차 업계 비상
“미 LNG·농산물 수입, 같이 검토를”
트럼프, 부가가치세도 관세로 간주
EU·한국에 ‘맞춤관세 부과’ 가능성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예정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대급부를 얻자는 주장도 있다.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생산기지가 한국에 있다는 점도 협상에서 부각해야 할 부분이다. 인천 부평, 경남 창원 공장 등 한국 GM에서 지난해 수출한 차량 47만3165대 중 88.5%인 41만8792대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됐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관세로 인한 타격이 현대차·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협상에서 내세우면서 저율 관세를 유도하거나 부과 시점을 늦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자동차 관세 부과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도 ‘공정 무역’을 내세우며 상호 관세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다른

국내 주요 산업 대미 수출액 비중
단위: % ※2024년 수출액 200억달러 이상 품목 기준

자동차	49.1
자동차부품	36.5
일반기계	29.4
철강제품	13.1
석유제품	10.1
석유화학	8.9
반도체	7.5
선박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든 미국 또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불공정했던 이전의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변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상호 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라는 이름의 각서에 서명한 대로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Value Add Tax-VAT)와 보조금 등 비(非)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의 비용을 따져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별로 15~25%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가 자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한국도 10%의 표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수출품에는 EU 국가처럼 영세율을 적용한다.

김효성 기자, 위성탄=김형구 특파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RW & S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경험이 사고배후 피해자에게 있어 빠른 것을
도움은 변호사가 법정에 앞섭니다.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국인 100%
703-887-1037
lee@rowepllc.com

딥시크가 불 지폈다, 누구나 쉽게 만들고 공유하는 AI 혁명

새해 들어 인공지능(AI)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초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계 투자의 중심이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경제 관계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자.

장면 1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였다. 약 720조원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이 인공지능 인프라에서 확실한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면 2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 R1 발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던 찰나 중국 스타트업이 발표한 ‘딥시크 R1’의 연구 논문이 공개되며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딥시크는 오픈AI 대비 18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의 인공지능 성능을 능가하는 모델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발표 직후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의 최대 수혜주였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17% 폭락했으며, 미국에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

장면 3 폴 앨런의 톨루3 오픈소스 공개

딥시크 발표 후 불과 며칠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억만장자 폴 앨런은 자신의 ‘앨런인공지능연구소’를 통해 딥시크 R1과 오픈AI의 GPT-40을 뛰어넘는 ‘톨루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그는 데이터, 코드, 학습 방법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누구든지 소규모 인공지능 모델과 응용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의 사건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변화=딥시크의 발표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공 이후, 인공지능의 크기(정확히 말하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 수)와 컴퓨팅 능력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인식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귀납적 인공지능경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귀납적 방식이란 입력값과 정답을 제공하면 인공지능경망이 파라미터를 훈련하여 입력값에서 정답으로 이르는 함수값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함수의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



오픈 소스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로고와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챗봇 ChatGPT의 로고, 딥시크는 오픈AI 대비 18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5년 내 초기 비용 10%로 내려갈 수도
세상 모든 일에 AI 들어가게 될 것
720조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트럼프 재선되자마자 맨 먼저 발표
글로벌 경제 판도 바꿀 주요 변수
AI 인력·인프라에 국가 흥망 달려

입력값을 주더라도 올바른 정답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함수의 파라미터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그 규모가 1000억 개를 넘어서면서 어떤 입력 문장에도 답(다음 문장의 단어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각인 시켜준 챗GPT3.5의 파라미터 수는 1750억 개였으며, 현재 딥시크 R1 모델을 비롯한 최근의 모델들은 6000억~7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을 하여 구하여야 할 파라미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컴퓨팅 파워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왔다. 딥시크는 이러한 거대한 수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는 학습 기법을 개발했다. 이것이 미국이 딥시크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 이유다.

#2 딥시크의 기술, 불법적인가=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딥시크의 기술이 오픈AI 등의 미국 기업 데이터를 도용한 것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연 딥시크는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을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추론’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귀납적 추론을 완성하려면 주어진 입력값에 대한 결과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명확한 결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과값이 없으면 파라미터 값을 학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입력값(프롬프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답이 정답인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답을 주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도출된다. 바둑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현재 내가 여기에 수를 놓는 것이 답인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마지막 계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의 값을 일단 넣어보고 나중에 그것이 답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 부른다. 챗GPT와 같은 모델은 RLHF(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해 다양한 답변 중 훈련된 사람들이 직접 최적의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습한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다.

반면 기존의 우수한 모델을 활용하는 ‘증류(Distillation)’ 기법이 있다. 즉 챗GPT 등의 출력을 정답으로 삼아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딥시크는 논문에서 수학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학습했다고 밝혔는데 수학 문제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언어 모델에서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을 시켰을까? 딥시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만 보고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미국과 AI 기업들이 딥시크를 의심하는 핵심 이유다. 필자 또한 딥시크가 증류 기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는 불법인가? 대부분의 LLM 모델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불법적인 해킹

으로 볼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어떤 효율적인 AI 시스템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거대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알파제로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기존의 기보 데이터(답)가 없더라도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3 인공지능의 미래=딥시크 발표는 미국 AI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실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비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앞으로 5년 내에 초기 비용의 2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장면 3에서 앨런연구소의 톨루3를 언급하였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비슷한 인공지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딥시크의 비용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혁신적인 점은 누구나 쉽게 구현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을 표방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픈A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방적이지 않았던 오픈AI와 대조적이다. 오픈AI는 그동안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폐쇄적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제 딥시크, 톨루3 등에 의한 완전 오픈 시스템이 나오에 따라 전략적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실제 2월 2일 뉴스를 보면 샘 올트만 최고경영자는 전략 변화의 의도를 내비친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류의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개방의 의미를 떠나 비즈니스적으로도 개방을 통하여 사실상 표준화를 통한 자신의 시스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공지능은 비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오픈을 통한 API가 쉽게 제공이 된다. 거의 모든 시스템과의 연계가 되는 범용 기술이 제공이 되어 인간의 모든 일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산업혁명의 초기 모습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은 당시 유럽의 변방이었지만 명예혁명으로 인한 정치·사회 시스템의 안정화, 풍부한 노동인력과 석탄·철 등의 자연 자원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도 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준기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후 카네기멜론대 사회심리학 석사, 남가주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SK이노베이션의 AI 전략 관련 자문교수다. 『AI로 경영하라』 『오픈콜라보레이션』 『웹2.0과 비즈니스 전략』 등을 펴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저렴한 비용
- 2.편리한 물서비스
- 3.믿을 수 있는 회사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비과세 연금도 분배 방식 따라 상속세 달라져

NQ 스트레치 전략

NQ 스트레치 전략은 (Nonqualified Stretch)은 비과세 연금(Nonqualified Annuity) 가입자의 사망 후 분배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장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은 계약자의 사망 시 수익자에게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면 연금의 가치 증가분(interest earnings)에 대한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분배를 연장하면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연금 자산 잔액이 계속 투자되면서 더 큰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NQ 스트레치 전략

Advisory Variable Annuity(AVA)는 수수료 기반(Fee-Based) 변액 연금으로 일반적인 보험사 중심의 변액 연금보다 비용이 투명하고 투자 옵션이 다양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유리하다. 이러한 AVA를 활용하면 상속인은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분배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사망 후 연금을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에 따라 분배를 받으면 매년 과세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비과세 연금은 적격(qualified) 연금과 달리 최소 인출 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Advisory Variable Annuity의 특성을 활용하면 연금 내 자산이 지속해서 투자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최근 NQ스트레치 전략이 상속 계획을 최적화 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주목받고 있다.

가입자 사망 후 분배 오랫동안 연장해 상속인 부담 최소화
매해 일정 금액 과세 ... 소득세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방식
세금 내지 않은 연금 자산 전액 투자 지속으로 수익 창출 추가
수익자 명확히 지정하고 기대 수명 기준 인출 계획 수립해야

▶활용 사례

김 선생은 75세로, 100만 달러의 비과세 변액 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cost basis)은 50만 달러다. 그는 연금 수혜자로 45세인 딸을 지정했다. 김 선생이 사망한 후 자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50만 달러의 이자 수익에 대해 한 번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NQ 스트레치 전략을 선택하면 자녀는 자신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배받으며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인 박 선생의 케이스를 생각해볼 수 있다. 75만 달러의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0만 달러는 원금, 45만 달러는 투자 수익인 경우다. 그는 이 연금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 설정해두었다. 박 선생이 사망한 후 배우자는 연금을 일괄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역시 45만 달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배우자가 연금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인출을 연장하면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도 연금 내 자산을 투자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매년 4만 달러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유

리한 방식으로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자를 비과세 연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케이스다. 원소유주가 사망한 후 손자가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을 연장하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매년 일정 금액만 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원소유주는 효과적인 상속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고려 사항

NQ 스트레치 전략을 실행하려면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인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우자가 수혜자인 경우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약자의 원금과 투자 수익을 승계할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연금을 남길 경우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하여 인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연금 내 투자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손실 리스크를 없애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하는 경우 자신의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 등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활용한 NQ 스트레치 전략은 연금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혜자가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을 인출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연금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도 연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비과세 연금은 상속 시 기초 비용 조정(step-up)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NQ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해 연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때 Advisory Variable Annuity를 함께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개인의 재정 목표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가,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은퇴준비



라이언 우
블루앵커 재정보험

평생연금 어뉴이티의 장점

물가 상승·노후자금 바닥으로부터 안전장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 재정 마련 장점

많은 사람은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모아둔 노후자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씻어주고,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평생연금 어뉴이티(Lifetime Income Annuity)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 방식은 시장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은 단

기적인 급등락이 심해, 경제 위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손실을 볼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연금처럼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반면, 평생연금 어뉴이티는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의 인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평생연금 어뉴이티는 수명이 길어져도 끊임없이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모아둔 자금 20만 달러를 평생연금 어뉴이티에 넣어두었다가 5년 뒤인 65세부터 인컴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면, 매년 2

만1188달러를 내가 죽을 때까지 게런티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52만9700달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고, 혹은 더 오래 살았을 경우엔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20만 달러에 매년 10.5% 정도의 수입이 평생 게런티로 지급 보장되는 셈이 됩니다. 만약 반대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넣은 원금 20만 달러도 다 못 썼을 경우엔, 남은 금액 모두를 수혜자가 되돌려 받게 되니 그야말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플랜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재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재정 전문가들은 나이에 따른 점진적인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불리기 위해 투자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복리 효과를 활용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반면 60대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은퇴 후에 수입원 확보와 의료비, 생활비 등을 고려해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나이에 맞는 계획적이고 현명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생연금 어뉴이티는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 재정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물가 상승과 장수의 위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평생연금 어뉴이티는 노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562)644-4560

상속법



스티븐 채
변호사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평생 1300만불 이상 증여 시에만 세금 부과돼
리빙트러스트 등 상속 시 부동산 절세 혜택 커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

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 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빚,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대표변호사 **임 중 범**
James Yim Victory, Esq.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상가법 상고법관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 진 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종에서 라디오 시보로 ... 시간은 어떻게 사람을 묶었나

『시간의 연대기』 저자 이창익 교수
조선시대, 하루 세 번 타종이 전부
일제 때 사이렌 등 도입 이후 변화
일본과 달리 한국서는 양·음력 공존
“음력 점성술적 사고로 불안 해소”

1월1일에 새해 인사를 하고도 설날에서야 세배와 덕담이 오간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명절과 제삿날은 우리에게 양력과 음력, 두 개의 시간대가 있음을 일러준다. 아니,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휴일·절기를 따지는 것부터가 ‘근대적 시간’의 결과다. 하루 세 번 종을 쳐서 밤과 낮의 시작, 하루 중간을 알리는 게 전부였던 조선시대를 상상해보라. 언제부터 우리는 사·분·초를 다루는 시간의 포로들이 됐을까.

“조선정부가 태양력을 채택한 게 1896년인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였죠.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력을 써야 한다는 건 일본이 1873년 메이지 개력 역법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근 40년 만에 완전히 양력으로 전환했는데 우리는 양·음력이 꾸준히 공존했죠. 그 차이를 만든 사람들의 연대기를 써봤습니다.”

최근 『시간의 연대기』(테오리아·사진)를 펴낸 이창익(53) 고려대 연구교수의 말이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앞서 일제강점기 때 다양한 미신의 양상에 주목한 『미신의 연대기』(2021)를 펴낸 바 있다. “미신이란 게 작동하는 시공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다보니 일제강점기와 근대의 시간 문제로까지 연결됐다”고 했다.

지난 19일 그를 만난 곳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본관 앞. 예스러운 분위기의 시계탑(46.6m)이 우뚝 서 있다. 1935년 12월 ‘경성부민관’이라는 공연시설로 지어질 당시부터 있던 시계탑은 1975년 사라졌다가 2023년 복원됐다. 그의 책에 따르면 1901년 한성전기회사 탐옥 시계탑을 필두로 랜드마크 역할을 신축 건물엔 이 같은 대시계가 유행처럼 장착됐다. “정시에 운행되는 전차·기차, 정시에 개점하고 폐점하는 은행·백화점과 맞물려 근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고 한다.

정시라는 건 예컨대 오전 9시, 오후 5시처럼 딱 떨어지는 시간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선 처음엔 시계탑처럼 거대한 기념물이, 나중엔 각자 집의 벽시계나 손목시계 같은 게 보급돼야 했다. 저자는 종·오후(午砲·낮 12시를 알리는 대포)·사이렌·시계·라디오 등 시간과 관련한 사물의 역사를 술한 고문헌, 사료와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세밀하게 따라간다.

특히 우리의 근대가 일제강점기와 포개지기 때문에 ‘옛박자’를 낸 풍경들이 흥미롭다. 대표적으로 표준시 문제



가 있다. 조선에서 1908년 처음 적용된 표준시는 일본과 30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도입된 경부철도는 30분 빠른 일본 표준시(1904년 도입)에 따라 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군이나 일본인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차의 혼란이 결국 한일강제병합 후인 1912년 일본 표준시로 통일하게끔 만들었다.

달력 또한 일본이 먼저 도입한 태양력을 따라가는 식이었다. 다만 달력이 보다 오묘했던 것은 조선시대 썼던 시헌력이 단순한 음력이 아니라 ‘시간의 길흉’을 예측하는 점성학적 역주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24방위와 60갑자의 주기적 순환이 포함된 시헌력은 씨뿌리거나 재물 들이기 좋은 날 등을 안내했다. 그랬으니 1896년 양력이 처음 발행됐을 땐 절충이 필요했다.

“양력 달력 하단엔 음력 날짜와 역주가 같이 실렸어요. 1910년 무렵부터 조선은 양력 기준이 되지만 여전히 장날 같은 건 음력으로 돌아가죠. 달력에서 음력 역주가 사라진 건 1937년입니다. 이때 일제는 전쟁 태세에 발맞춰 조선의 미신 풍습을 뽑아내려 했는데, 이런 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처럼 양력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다. 일본에선 음력설이 사라진 반면 우리는 광복 후 우여곡절 끝에 1월1일과 설날을 따로 기념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음력의 자취는 전근대적 지체 현상일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강해란 문화선임기자

마대자루 뒤에서 배어나온 물감 ... ‘단색화’ 하종현의 시작

아트선재센터 ‘하종현 5975’ 전

“한 가지 방법을 꾸준히 관찰하는 아티스트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며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티스트가 있다. 나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975년 공간 대상을 받으며 마흔 살 하종현은 이렇게 인터뷰했다. 그의 말대로 작품세계는 앵포르멜(비정형)에서 기하학적 추상, 실험미술, 단색화로 쉼 새 없이 변했다. 서울 율곡로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하종현 5975’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던 1959년부터

초기 단색화 ‘접합’ 시리즈가 태동하던 1975년까지 하종현(90) 초기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한국 단색화 1세대 하종현이 이런 작업도 했나’ 싶은 초기의 실험적 작품 40여점이 나왔다.

전시는 흥대 졸업 작품인 자화상에서 시작한다. 20대 자화상을 평생 간직한 채 화가는 익숙한 것들과 끊임없이 결별했다. 1962년 하종현은 어두운 색조의 물감을 실험치와 함께 캔버스에 두껍게 바른 뒤 토치로 지졌다. 이어진 ‘도시계획백서’ 연작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71) 시기 새롭게 변하는 도시 경관을 원색의 선과 면이



쭉쭉 뻗어 나가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반복한 작품으로 단청의 원색을 사용 표현했다. ‘탄생’ 연작은 씨앗 무늬를 하면서 캔버스를 잘라 뚫자리 찢듯 엮

으며 소멸해 가는 전통에 눈길을 줬다.

1969년 하종현은 미술가 김구림·박석원·서승원·이승조 등과 함께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AG)를 결성했다. “비전 빈곤의 한국 화단에 새로운 조형 질서를 모색 창조해 한국 미술 문화에 기여한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AG에서 하종현은 철사·용수철 같은 일상의 재료로 실험적 작업을 내놓았다. 거울과 두개골·골반 엑스레이 필름을 활용한 설치는 과거 자료를 찾아내 이번 전시에 재제작했다.

1년 치의 검열된 신문 더미와 같은 크기의 백지를 쌓아 올려 언론 통제를 비판한 설치 ‘대위’(對位·1971)도 이 시기 작품이다.

권영기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미국, 격렬하고 잔인했던 시대 넘어 진보의 길을 가다

시대는 과거를 먹고 산다. 시대는 특정 시대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지금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JFK(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에서 그의 동생 RFK(로버트 피츠제럴드 케네디)로 이어지던 1960년대가 황금기였다. 가장 격렬했고(뉴 레프트 학생운동), 가장 비극적이면서 잔인했지만(이 어졌던 대통령 형제와 흑인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역설적으로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을 꿈꿨으며(마틴 루터 킹), 진실로 뉴 프론티어의 시대(존 F. 케네디의 국정 슬로건)를 향해 나아갔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은 어찌 됐든 진보하려고 노력했고, 진화해 가려고 애썼다.

독일 출신으로 할리우드로 건너와 명성을 얻은 감독 볼프강 페티슨(볼프강 페테르젠)의 영화 ‘사선에서’(1993년) 역시 이 같은 ‘JFK 향수’와 관련 있는 작품이다.

대통령 죽인 거대한 음모·배후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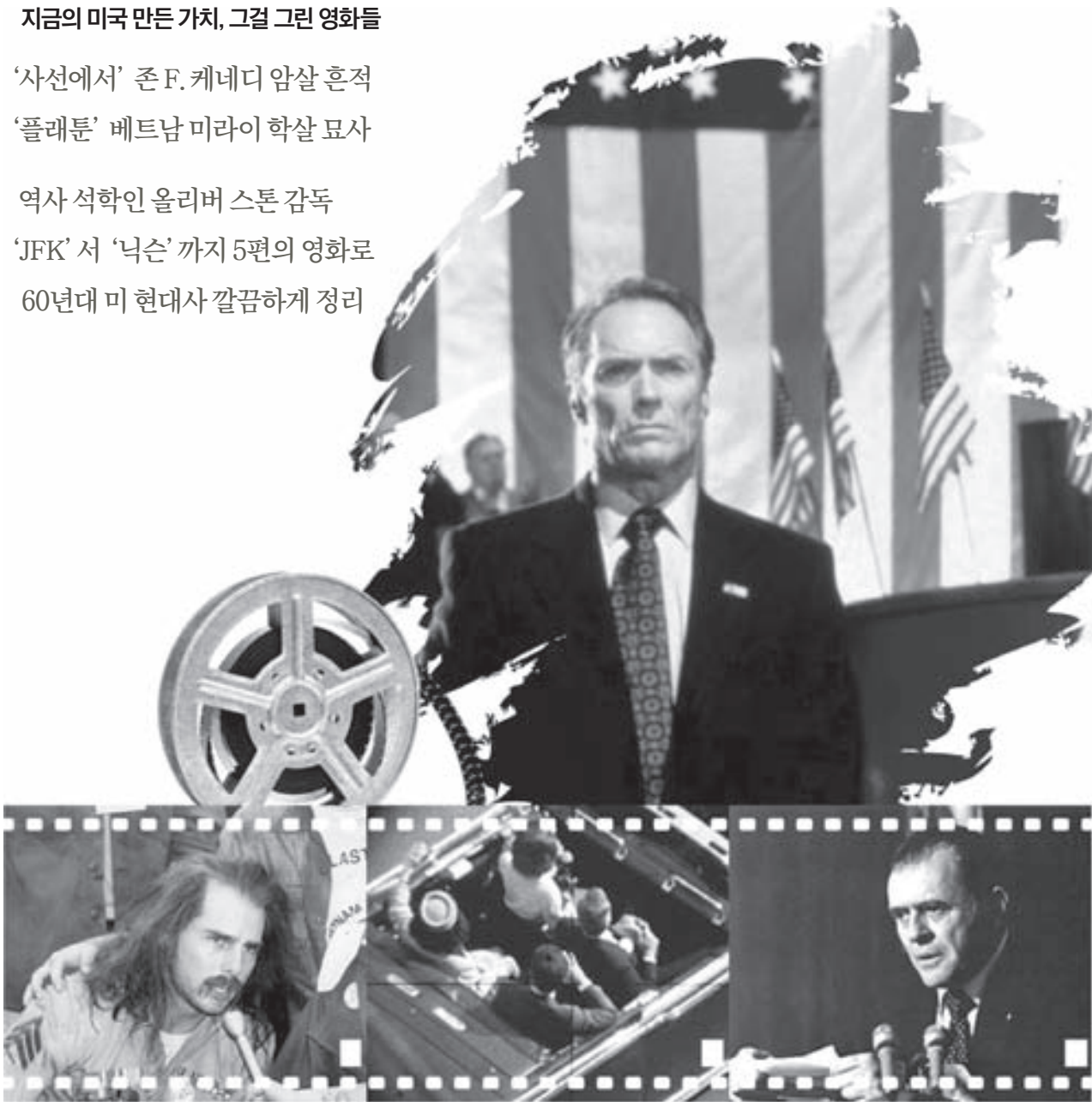
‘사선에서(In the Line of Fire)’는 한때 뛰어난 대통령 경호원이었다가 지금은 FBI의 ‘늑다리’ 요원으로 살아가지만 현재 대통령이 암살 위협을 받아 뒤늦게 경호실에 들어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프랭크(클린트 이스트우드)란 남자의 이야기다. 프랭크는 1963년 존 F. 케네디가 달레스에서 총에 맞을 때 바로 그 뒤에서 차를 경호하며 뛰고 있었던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며 산다. 프랭크는 곧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될 동료 경호원 윌리(르네 루소)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인간들이 케네디를 죽였다고 하지. 쿠바가 죽였다고도 하고 마피아가 그랬다고도 하지. 하지만 난 그런 거 몰라.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몸으로 막았어야 했어.” 이 말을 하면서 프랭크의 눈가는 촉촉이 젖는다.

영화의 분위기는 신화의 최고봉이지만 개봉 당시엔 아마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프랭크의 대사 “내가 그를 살리지 못했어(우리가 그를 죽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가 대변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얘기임에도 이 장면이 그다지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안 그렇겠는가. 우리에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남긴 상처가 크다. 모든 정치적 찬반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 만든 가치, 그걸 그린 영화들

‘사선에서’ 존 F. 케네디 암살 흔적 ‘플래툰’ 베트남 미라이 학살 묘사

역사 석학인 올리버 스톤 감독 ‘JFK’ 서 ‘닉슨’까지 5편의 영화로 60년대 미 현대사 깔끔하게 정리



영화 주인공 프랭크처럼 1960년대 미국의 역사를 자신의 필모그래피로 가득 채운 감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올리버 스톤이다. 그의 영화 베트남 3부작(‘플래툰’ ‘7월4일생’ ‘하늘과 땅’) 그리고 실로 위대한 걸작인 ‘JFK’와 ‘닉슨’ 다섯 편을 작품제작 순서가 아니라 사건 연대기 순으로 보면 미국의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20년 가까운 현대사가 깔끔하게 정리된다. 사건이 발생한 순서로 영화를 재배치하면 ‘JFK’가 가장 앞서고 ‘7월4일생’ 그리고 ‘플래툰’과 ‘하늘과 땅’은 겹쳐져 있으며 마지막은 ‘닉슨’이 된다. 이 다섯 편의 작품은 영화야말로 훌륭한 역사 교과서이자 뛰어난 교사임을 입증하는데 하등 손색이 없다.

영화 ‘JFK’는 케네디 암살의 배후를 캐는 지방검사 짐 개리슨의 수사 과정과 재판을 그린 내용의 작품이다. 케네디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죽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스왈드조차 마피아 단

원인 짝 루비에게 죽고, 이 짝 루비조차 감옥에서 폐암으로 급사하자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의혹은 일파만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케네디가 암살된 1963년의 상황, 곧 미-쿠바간 미사일 갈등과 불합, 마소 냉전과 데탕트 분위기, 미국 내 극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 등을 종합하며 대통령을 죽인 것은 거대한 음모와 정치군사적 배후 조직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파키스탄 계의 급진 좌파적 세계 석학인 타리크 알리와 대담집 『역사는 현재다』를 출간할 만큼 그 스스로가 석학 수준인 올리버 스톤은 영화 ‘JFK’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음지도 모를 한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 통한의 묘비명을 쓴 셈이 됐다. 영화 ‘JFK’는 정치스릴러 영화의 전형을 구축해 냈다는 점(특히 편집 분야에서)에서도 현대 영화사에서 중요한 족적으로 기록된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의 미국사를 3시간의 러닝 타임에 꼼꼼히 수록해 놓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암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짐 개리슨(케빈 코스트너)이 TV에서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피격 뉴스를 본 후 충격에 빠져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 리즈(시시 스파이섹)를 등 뒤에서 안으며 속삭이는 장면은 미국인들이 이들 형제 대통령과 더 나아가 이때의 시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개리슨은 울먹이며 속삭인다. “그들이 또, 결국, 동생까지 죽였어.”

영화 ‘플래툰’ ‘7월4일생’ ‘하늘과 땅’의 영화 속 내용은 모두 시기가 겹치거나 해체돼 있다. ‘7월4일생’의 주인공 론 코빅(톰 크루즈)이 신병 훈련 후 투입된 곳은 베트남 중부 전선이다. 그는 1965년쯤 격전지였던 후에와 다낭 중 한 곳에서 교전 중 총을 맞고 하반신 불구가 된다.

위기의 시대 지식인의 역할 보여줘

반면 영화 ‘플래툰’의 사건 배경은 명백히 1968년의 ‘미라이 학살’ 사건이고 영화 속 반즈 중사(톰 베린저)는 양민 학살의 주동자이자 장본인이었던 윌리엄 켈리 소위를 캐릭터화한 것이다. 미라이 학살로 유야 50여 명을 포함해 500명 가까운 양민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강간, 고문의 흔적도 있었고 사지가 절단된 사체도 나왔다. 이 학살 사건은 결국 미국 내 반전 운동에 기름을 부었고 여기에는 장애인인 된 참전 퇴역 군인들 다수가 참가했는데 그 시위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영화 ‘7월4일생’의 후반부다. 론 코빅과 그의 동료들(영화 속에서는 톰 크루즈와 윌렘 대포)은 1972년 닉슨이 이긴 공화당 전당대회에 ‘난입’해 반전 구호를 외친다. 그 생생한 장면들이 영화 속에 담겼는바 ‘플래툰’과 ‘7월4일생’을 순서 상관없이 이어서 보면 1965년부터 1972년까지의 미국이 베트남전 문제로 얼마나 큰 충격을 겪었는가를 목격할 수 있다.

베트남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얘기는 ‘하늘과 땅’에서 그려지는데 이것은 명백히 참전용사였던 올리버 스톤이 너무나 잘 아는, 경험했음직한 얘기들과 섞여서 전개된다. 베트남 3부작의 모든 에피소드는 어찌 보면 씨줄·날줄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들 3부작의 정치적 배경은 케네디 형제의 잇단 암살과 연결돼 있는데(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전후의 얘기는 서스틴 클라크 저, 박상현 번역의 『라스트 캠페인』을 참조하면 좋다), 케네디 가는 베트남에서 병력을 뺄 공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확대된 것, 미국 내 많은 젊은이들(‘플래툰’의 반즈 중사 같은 발란까지 포함해서)이 희생되기 시작한 것은 형 케네디가 사망한 후, 후임 대통령인 린든 B. 존슨 때부터이며 동생 케네디도 철군을 주장하던 중 암살당한 후임 닉슨 때 역시 병력은 계속 추가 파병됐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바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2025년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모집분야

취재 기자: 0명

*높은 조건의 연봉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kdclass2018@gmail.com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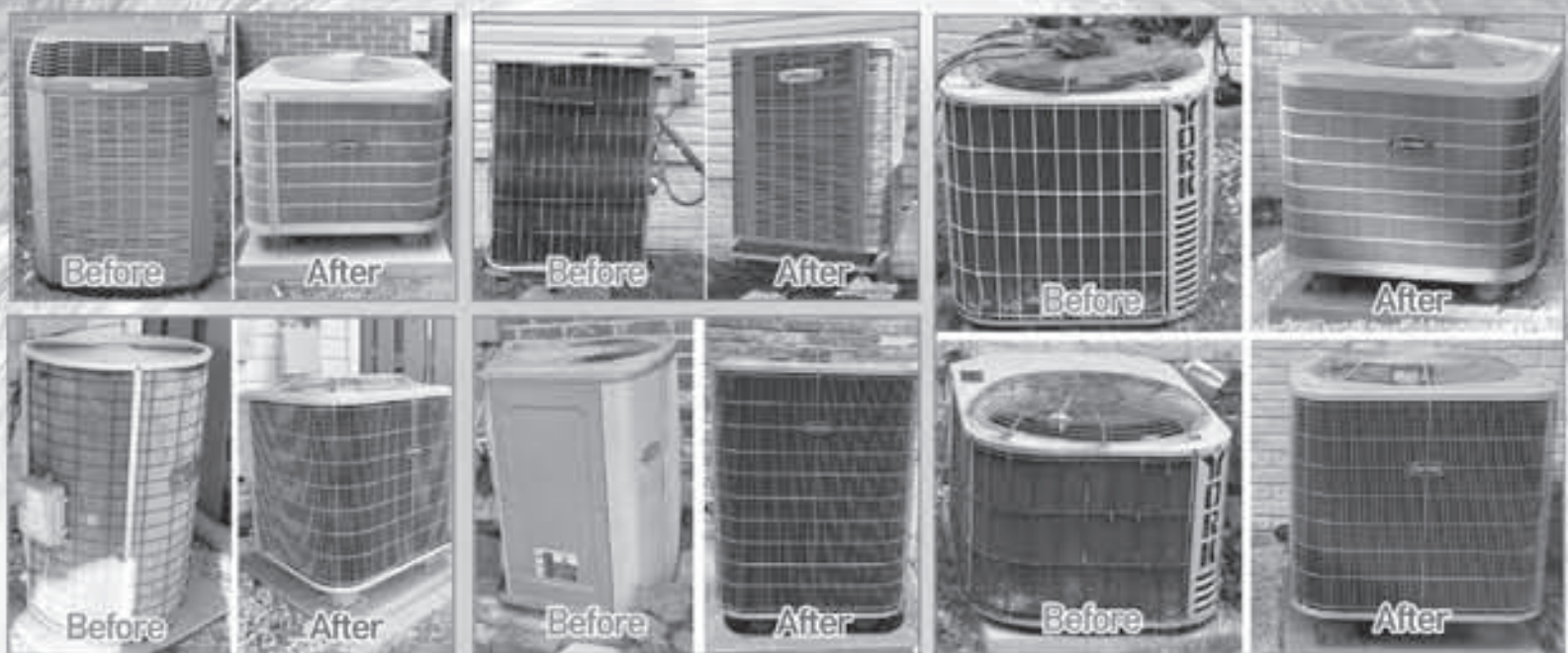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2월

구인

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급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채틀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딕크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팅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 파토요일 또는 하루 일할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컷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죽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속(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 마트 근처 싱글홀 욕실 딸린 이중 큰방, 반 지하방 (출입 문 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 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로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버트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텅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443-983-8100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로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저먼타운 방 1 욕실 별도, 금연자 깨끗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홀 2층 방/유로/가구일체/교통편리/인터넷완비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홀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 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양로 5분 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 2/부엌 1/화장실 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매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홀 렌트 방 5, 화장실 4, 차고 2, 좋은 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매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홀 방 4, 화 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홀,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중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 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매릴랜드 (롯데 마켓 5분 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사업체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매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 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 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 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ing Associate (Graphic): Design graphics to meet specific needs of restaurant groups, such as promotion and observation of customers' response. Design and maintain web-based marketing programs such as campaigns,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on competitors, prices and sales. Use common programs such as Adobe Premiere Pro, After Effects, Capcut, and basic social media applications. Position reports to the employer but may telecommute from anywhere in the U.S. 40 hrs/week. Associate degree in Graphic Design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Thaidee, Inc., t/a Asia Nine at 7008 Barnack Dr, Springfield, VA 22152

Project Management Specialist (Construction): Create, analyze and coordinate construction plans, budget, staffing, schedule, logistics, compliance and reporting of individual construction projects. Lead and guide the work of technical staff. Visit and work on construction sites within the BLS area of the employer. 40 hours/week. Bachelor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Blue Sky Builder LLC at 1121 Arlington Blvd, #221, Arlington, VA 22209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 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 - F (9-5pm) 856-304-1907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험자 우대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Visa 및 영주권 스폰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 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를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 ▶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충양일보**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로톤세탁소파트/풀타임카운터보실
분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에난데일 H마트 옆 방하나 화장실하나, 직장
인 환영, 남녀불문, 즉시 입주가능 \$800
703-350-1986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CVS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조지메이슨근처 안전하고 조용한 싱글홈 반지하방/부엌/세탁기/냉장고/가구 완비/인터넷/출입문별도
703-350-2278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 474- 9713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앞에 버스 스탑 있음
703-244-345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방1/ 화실/ 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3개 전체 리모델링함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 이스코너 근처
703-307-247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윌 오피스콘도 -렌트 2층 룸3개/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1,900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챈들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 앞
▶571-239-6054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펄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라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마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펄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전문가가 되세요. 뉴스타 부동산 학교 개강 2월 11 일(화) 저녁 6시, 기간: 6주 비용: \$295 + \$100 (교재)
문의: 703-496-4989

귀국으로 가구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팝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트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 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 고미술품과 돌침대 가재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 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 420-5492 / (703) 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적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편허소지 202-774-6554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질 포장이사 서비스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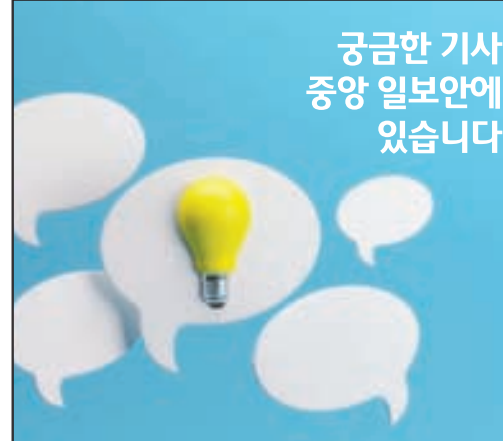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레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펄프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수리

케리아웃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탄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ack: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잭: 이번 주말에 뭐해?

Chuck: Well, Saturday I’m taking my sister out to dinner.

잭: 음… 토요일에 누이와 외식해.

Jack: What’s the occasion?

잭: 무슨 날이야?

Chuck: It’s her birthday.

잭: 누이 생일이야.

Jack: What restaurant are you taking her to?

잭: 어떤 식당으로 갈 건데?

Chuck: I don’t know yet. That’s up to her. She’ll choose the restaurant she likes.

잭: 아직 몰라. 누이 맘이지. 누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고를 거야.

Jack: Is she older or younger than you?

잭: 누나야 동생이야?

Chuck: She’s older; five years older.

it’s (or That’s) up to (one); (누구에게) 달려있다

Jack is talking to his friend Chuck.

(잭이 친구 척과 얘기하고 있다.)

척: 누나야. 다섯 살 위 누나.

Jack: Did you get along when you were kids?

잭: 어렸을 때 사이 좋게 지냈어?

Chuck: Oh no. We fought all the time. You know sibling rivalry.

척: 아니. 만나면 싸웠어. 있잖아 형제끼리 경쟁 의식.

기억할만한 표현

▶ get along (with someone): (누구와) 잘 지내다.

“I get along with my neighbors. They’re nic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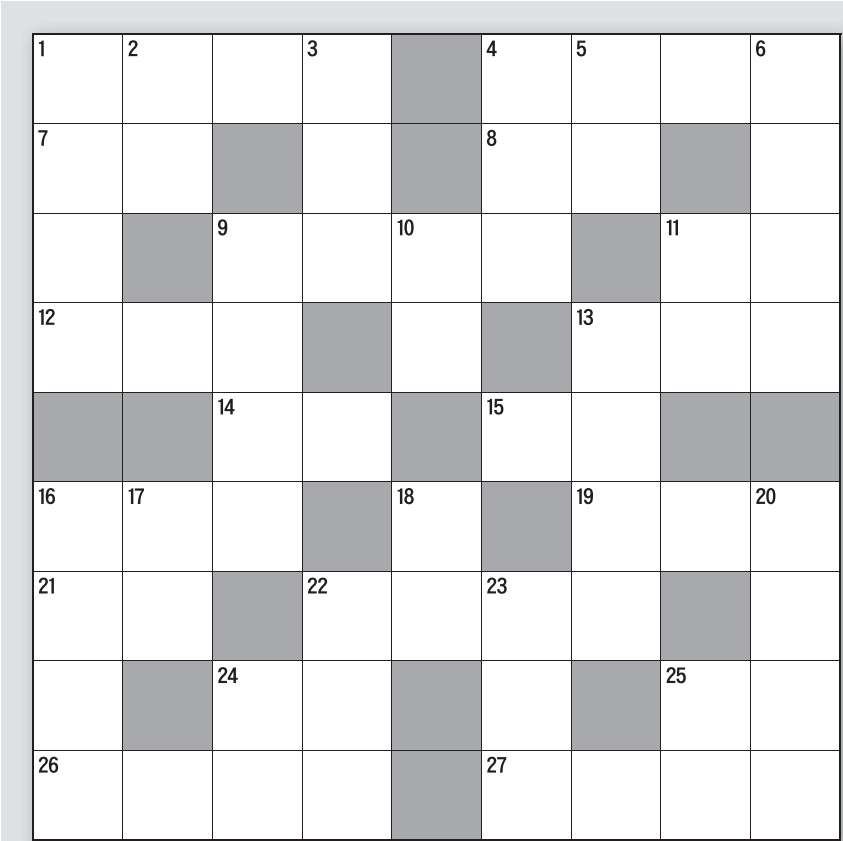
(이웃과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예요.)

▶ sibling rivalry: 형제 자매 사이의 경쟁의식

“The sibling rivalry I had with my brother when we were kids was big.”

(어렸을 때 저도 형제 사이의 경쟁의식이 보통이 아니었죠.)

날말퀴즈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가로열쇠

(1)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 월매 밥상은 ~로 가득할 뿐 아니라, 신선로 같은 궁중음식까지 올랐다 (4)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한. 이번 전투는 우리가 ~이었으나 지원군의 도움으로 적군을 절파할 수 있었다. □□부□ (7) 잘게 썬 고기에 양념, 채소, 버섯, 해물 따위를 섞어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음식 (8) 가구 따위를 꾸미기 위해서 박는 쇠붙이. 장롱의 ~이 떨어져 나가다 (9) 알팍한 돌을 물 위로 비껴 던지면 담방담방 튀어 가며 물결을 만들조 (11) 배에 짐을 실을 (12) 혼자 독학하여 가지는 물건. 철학은 철학자들만의 ~이 아니다 (13) 고기를 얻기 위하여 거세하여 기른 소 (14)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 (15) 인도에서 전하여 오는 심신 단련법 (16)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19)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단 문 (21)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는 자루 (22)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 (24)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25) 약액을 조직이나 혈관 속에 넣는 일 (26)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붓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글씨가 잘

됨. □필□□ (27)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

□역□□

세로열쇠

(1) 산과 물에서 싸움. 이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어 경험이 많음. ~ 공중전까지 다 겪어 보았다 (2) 죽은 사람의 남은 뼈 (3) 방정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수. 예측할 수 없는 앞일.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직 ~다 (4) 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 (5) 지나치게 많이 먹음 (6)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씬. □재□□ (9)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 (10) 남자 형제 사이에서 아우의 아내 (11)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13) 편평하며 별 모양 또는 오각형이다. 육식성이어서 굴, 전복, 조개 따위를 잡아먹어 양식에 피해를 준다 (16)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움. □□고□ (17) 돼지의 창자 속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만들조 (18)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곳 (20) 종이, 붓, 먹, 벼루의 네 가지 문방구. □방□□ (22) 물이나 술을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23) 아궁이 위에 술을 걸어 놓는 언저리 (24)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 (25) 절을 주관하는 승려

스도쿠

			1	7				3
		4	8		2		6	7
7	5	8						2
9			6			8	2	
	7	2			1	3	5	
3	8		2			4		6
	1	6	7					5
	2			1	6			
	9	7		2	8	6	1	



자료제공=올드북 (www.go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1	9	8	2	3	7	6	5
8	6	7	9	1	5	3	2	4
5	3	2	6	4	7	9	1	8
9	7	4	5	6	2	1	8	3
6	5	3	1	8	4	2	7	9
1	2	8	7	3	9	5	4	6
2	4	1	3	9	6	8	5	7
7	9	6	2	5	8	4	3	1
3	8	5	4	7	1	6	9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법학박사'하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애틀랜타 기타 지역

구인 매매

일본식당 구인 세탁소매매-텍사스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텍사스지역
가격\$18만, 렌트\$1,400
월매상 \$25,000
(806)894-3044
(213)663-2770

이민생활의 내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지긋한 3차 신경통과 중풍치료로 기적을 경험하다!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그는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했던 그는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을 찾았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침, 뜸, 약물 치료 등 6단계 치료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치료 후 틀어진 목이 반듯해지고, 통증과 언어 장애가 개선되었으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3차 신경통 치료도 전문으로 한다. 3차 신경통은 얼굴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 질환으로, 말하거나 씹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서 박사는 "한방 치료를 통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풍과 3차 신경통 치료의 핵심은 기혈 순환을 돕고 혈전을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제거하는 것이라며, 심혈관 치료를 위한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함께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풍 예방을 위해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213) 385-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배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 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담임목사 및 부목사 청빙

나성교회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와 부목사 각각 1인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 정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
- 미국에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가족소개서(사진포함)
- 신앙 고백서
- 목사 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 추천서 3장
- 최근 6개월내 설교 CD/DVD/MP3 2회분

기타 사항

-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oad
La Habra Heights, CA 90631

2월의 세일



요리에 편리함을 더한 특허받은 기울기 41.5도 자동회전냄비

열가두는 자동회전냄비 인스타그램 유튜브 화제의 리뷰템!
바이탈 롤팬원통자동회전냄비

통가열 입체구조: 그레이, 머스터드, 민트 ~~\$290~~ \$199



당 함량을 49% 줄인 날씬한 저당밥으로 건강하게!

썸트레이, 8가지 취사모드 / 혈당관리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BANU 바누저당 밥솥 (흰색,검정)

24분 캐속백미, 이지터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149~~ \$79



재활전문인가 직접 제조/ 근육통, 관절염 등 즉각적인 효과

전세계 8개국 인증 제조 특허/시원하고 화끈한 핫&쿨 제형

메디슨벨 알약 패치(48매 Pill Patch)

숨쉬는 통기성 탄력원단 굴곡 밀착, 2가지 사이즈 \$29



가래,기침,천식 증상완화에 효과적인 생약성분 한방감기약

감기증상, 목통증과 두통개선/ 가래, 기침, 천식 증상 완화

자모 연조엑스+안티캠 캡슐 번들

자모3+안티캠2 \$37.40 자모6+안티캠4 \$72.99



100% 순수발효효소 더부룩한 일상 트렌디한 관리 2주 감량

발효곰부과채효소 22%함유 섭취하기 용이한 스틱형 제품

김소형원방 발효 콤부 과채효소 90g

1BOX (30冊) **\$39.99** **2BOX** (60冊) **\$69.99** **4BOX** (120冊) **\$119.97**



단델리온 깊은 잔향과 부드러움, 은은한 향취가 촉촉하게!

땀기머리가 제안하는 풍부한 향으로 더욱 향기롭게 관리

수페온 데일리 무드 바디로션

플로럴계열의 따뜻한 봄날의 향기 \$15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하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www.ebluu.com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총 \$1,500 상당의
10"태블릿 5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토랑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드 주문 서비스의 혁신



편리함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실수 감소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함으로써 잘못된
주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식사 시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

편안한 환경에서 주문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9.90
기기 1대당
월사용료

1 - 5STATIONS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8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CSM@ebluu.com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